3511
322.11

Ⅰ.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Ⅱ.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調査研究

北韓의 最近 對外經濟政策研究

Recent Overseas Economic Policy of North Korea

研究執筆責任 李 相 斗
中央日報社論說委員
中央日報 東西問題研究所 研究委員

刊行責任 金 永 圭
(調査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調査研究室

要　　約

北傀의 経済政策의 基調는 自力更生의 原則 위에 自立的 民族経済를 건설하는 것이요, 이를 토대로 하여 兄弟諸国과의 経済協力을 추진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北傀가 전통적으로 견지해온 硬直된 아우타르키体制는 그들의 経済計劃의 목표달성에 지장을 가져왔고 経済発展의 沮害要因으로 作用했던 것이기에 1970年代에 들어와서 対外経済政策에 変化와 方向転換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6個年計劃期(1971年~76年)에 들어서면서부터 종래의 共産圈을 중심한 域内経済協力体制에서 西方資本主義国家와의 経済交流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1974年에는 対西方貿易額이 対共産圈貿易額을 上廻하는 対外貿易의 地域構造에 큰 変化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政策変化의 必要性은 1975年3月2日 「全国工業熱誠者大会」에서 행한 金日成의 다음과 같은 연설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주로 社会主義 나라와 貿易을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新生独立国과 資本主義 나라와도 크게 貿易을 해야 한다」

北傀의 対外経済政策이 이같은 変化를 겪기까지는 몇단계의 発展変遷過程을 거쳐왔는데 그 첫번째는 革命과 経済建設에 있어서 自力更生을 第1義的으로, 対外経済協力은 国内産業의 補完的 手段으로

서 第2義的인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다가 다음에 共産圈市場에 대한 域内交易을 第1次的인 대상으로, 資本主義国家와의 教育은 副次的인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先進資本主義国家로부터의 資本·技術導入의 必要性이 強調되기에 이르렀는데 最近의 北傀의 対外経済政策은 「全方位対外貿易」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現代国家의 共通的인 현상이긴 하나 北韓経済에 있어서도 対外経済協力導入이 큰 意義와 比重을 갖고 있다 하겠다. 이는 北韓経済의 発展過程에서 対外経済協力導入에 의한 波及効果가 北韓의 経済成長을 가능케한 原動力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金日成은 1977年4月1日 日本 読売新聞編輯局長과의 회견에서 第2次7個年計劃(1978～84年)에서는 「일부의 先進技術은 導入하겠지만 外資의 導入은 하지 않겠다」고 언명한 적이 있는데 이는 6個年計劃期間中에 無計劃的인 過度한 外資導入으로 빚어진 経済破綻 事態에 대한 反省에서 나온 말에 불과하며 진심으로 外資導入을 않겠다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동시에 이런 発言은 対外負債償還 不履行으로 外資導入이 사실상 壁에 부딪치고 있는 어려운 처지를 実吐한 逆説的인 告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経済에 있어서의 経済計劃과 外資導入과의 構造的인 相関関係는 1978年부터 시작된 第2次7個年計劃에서도 지속될 것임은 豫測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北傀는 올해 들어 対外貿易増大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金日成이 작년말 主宰한 党中央委 第5期第17次全員会議 및 금년 新年辞에서 79年度 主要力点事業의 하나로 強調한 対外貿易強化活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 新年辞에서 金日成은 「올해에 우리는 対外貿易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対外関係가 매우 넓어지고 経済의 規模가 비할 바 없이 커진 오늘의 현실은 対外貿易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要求하고 있다」고 하면서 対外貿易에 관해 異例的인 主体的 課業指示를 한 바 있다.

이러한 決定과 指示에 따라 올해는 例年에 없이 対外貿易強化에 努力, 上半期까지의 経済動向中 이 분야에 活動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5月下旬 現在 東独, 이집트등 5個国에 貿易使節団을 파견하는 한편 쿠바·이집트·요르단·東独·항가리·유고 등 12個国과 貿易商品 및 科学技術協定 등을 締結했다.

이외에도 5月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開催된 유엔貿易開発会議(UNCTAD)에 대표를 파견했으며, 6月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코메콘(東欧経済相互援助会議)에 업저버를 파견하기도 했다.

北傀가 対外経済協力導入에 이처럼 積極性을 띄우게 된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첫째는 韓国의 対外貿易高가 127달러를 넘어선 놀라운 事態앞에 자극을 받은 때문이며, 둘째 過重한 対外負債를 수출을 통한 外貨獲得으로 解決하려는 심산이라 하겠다.

세째는 国際環境要因의 変化, 특히 日·中共友好平和條約 締結과 美·中共国交 正常化로 나타난 中共의 実用主義·現代化路線에 입각한 対西方接近政策의 教訓을 받아들이려는 用意와 자세 때문이라 하겠다.

네째는 第3世界国家들과 나아가 西方諸国에 대해 積極的인 平和攻勢를 펴는 한편 経済·文化交流를 拡大하려는 의도에서라고 하겠다. 그리고 北傀와의 貿易을 기피 경계하는 원인으로 되고만 「失墜된 信用」을 회복하려는 몸부림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는 中蘇로부터 받고 있는 援助가 満足스럽지 못할 뿐더러 中蘇対立에서 오는 政治的 이데올로기的 要因 때문에 援助에 대한 장래에의 기대가 不透明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여섯째는 共産圏의 技術水準과 機械設備로는 北傀가 기대하는 技術習得과 技術向上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라 하겠다.

結論的으로 말한다면 앞으로 北傀의 対外経済政策은 종전의 아우타르키体制를 止揚, 経済発展을 支援하는 開放体制로의 積極的인 転換을 遂行하여 貿易拡大를 시도하고 対蘇·対中共·対東欧貿易 및 技術導入을 지속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西欧·日本等 資本主義圏에로의 接近을 더욱 積極化하고, 輸出市場開拓을 위해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即 第3世界에도 積極的으로 진출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南韓当局」과의 対話拒否라는 그들의 最近의 硬化된 対南態度로 미루어 南北韓経済交流·経済協力関係 改善의 展望은 不透明할 뿐더러 매우 悲劇的이라 할 수 있다.

目　　次

一. 北韓의 対外経済政策의 基本路線 …… 9

1. 対外経済政策의 基調 …… 9

2. 対外経済運営面에서의 特徵 …… 14

二. 北韓의 対外経済政策의 推移와 現況 …… 17

1. 対外貿易面에서의 推移와 現況 …… 17

① 対外貿易의 推移 …… 17

② 地域別 貿易構造 …… 23

③ 貿易商品構造 …… 33

④ 対外貿易機構 …… 46

2. 資本·技術協力面에서의 推移와 現況 …… 50

① 時期別 資本·技術導入推移 …… 50

② 国別 資本·技術導入推移 …… 66

③ 部門別 資本·技術導入推移 …… 67

三. 北韓의 対南経済協力 가능성 …… 72

1. 南北韓간 経済協力의 必要性 …… 72

2. 南北韓간 交易의 事例와 経過 …… 74

3. 交易商品의 選定問題 …… 75

四. 対外経済政策의 問題点과 展望 …… 77

1. 問題点 …… 77

2. 展　望 …… 84

序　　言

北傀의 経済政策의 基本立場은 「自力更生의 原則堅持와 民族経済의 自主的 土台 위에서의 兄弟諸国과의 経済協力」이라 하겠다.

金日成은 1962년 10월 23일 最高人民会議第3期第1次会議에서 행한 연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政府의 当面한 課題에 대하여」에서 「社会主義経済의 建設에서도 우리는 계속하여 自力更生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 民族経済의 自立的 土台를 한층 굳건히 쌓아 올리는 方向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며 이 기초 위에서 兄弟国과의 経済的·文化的 協力을 한층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1] 고 했다.

지금도 이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는데 금년 9월초 쿠바의 아바나에서 개최되는 第6次非同盟国家首脳会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소집된 지난 7월의 労動党中央委政治委員会와 中央人民委員会聯合会議에서의 토의가 이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즉 「불럭不加担運動이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成員国들에 완전한 経済的 解放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項目에서 「自力更生의 기치 밑에 自立的 民族経済를 건설하여야 民族的 不平等의 실제적 기초인 経済的 落後性을 없애고 완전한 평등과 互恵의 원칙에서 協調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2] 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非同盟国·発展途上国간의 経済·技術的 協調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도 民族経済의 自立性 강화에 기여하는 限에서만 그렇다는 것이다.

「불럭不加担나라들 사이의 経済技術的 協調는 民族経済의 自立性을 강화하는데로 志向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民族経済의 自立性強化의 확고한 担保로 되는 면에서 강조하는 非同盟国간의 経済交流와 技術協調이긴 하지만 이같은 입장은 과거의 硬直된 아우타르키 体制로부터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이같은 변화는 6개년계획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일어났는데, 종래의 社会主義諸国을 중심한 域内経済協力体制에서 西方諸国과의 経済交流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1974년에는 対西方貿易額이 対社会主義国貿易額을 上廻하는 対外貿易의 地域構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3)]

이러한 변화를 시인한 탓이었는지 金日成은 1975年 3月2日에 개최된 「全国工業者熱誠大会」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주로 社会主義나라와 貿易을 해 왔지만 지금부터는 新生独立国과 資本主義諸国과도 크게 무역을 해야 한다」고, 対外経済政策転換의 必要性과 가능성을 천명했다.

하기야 이미 1960년대초에 資本主義国家와의 経済交流를 원하는 発言을 한 적이 있다.

労動党第4次大会(1961年9月11日)에서 행한 中央委活動報告에서 「・・・지금까지 経済文化交流分野에서도 우리나라의 対外関係

는 크게 확대되고 발전되었다.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와 通商 및 文化的 連繫를 맺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人民과 우리 인민과의 교류도 날마다 활발해지고 그 友好的인 紐帶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앞으로도 한층 많은 나라들과 平等・互惠의 원칙에 기초하여 対外貿易을 발전시키고 文化交流와 親善的인 協力関係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資本主義諸国과도 正常한 관계를 수립하여 経済・文化의 交流를 발전시킬 것을 바라고 있다」[4] 고 했던 것이다.

金日成은 금년의 新年辭에서는 1978年을 「社会主義建設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빛나는 성과를 거둔 자랑할 승리의 해였다」고 하면서 1979년은 「全党과 全体人民이 총동원하여 社会主義経済建設에 새로운 転換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해이다」고 하였다.

그런데 금년의 新年辭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対外貿易에 관한 課業指示라 하겠다. 즉 「올해에 우리는 対外貿易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対外関係가 매우 넓어지고 経済의 규모가 비할 바 없이 커진 오늘의 현실은 対外貿易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対外貿易의 발전은 이미 創出되어 있는 生産能力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생산을 보다 높이고 自主的 民族経済를 한층 공고한 것으로 하여 세계제국의 人民과 親善協調関係를 증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한층 많은 나라들과 平等·互恵의 원칙에 기초하여 対外貿易을 발전시키고 文化交流등 親善的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고 하여 共産国家와의 무역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第3世界国家들 및 기타 国家들과의 무역을 발전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信用第一主義原則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人民経済 모든 부문에서 수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며 그 質을 높이고 納入期日을 어김없이 지켜야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같은 対外貿易面에서의 구체적인 과업지시는 金日成의 新年辞에선 일찌기 없었던 일이며 동시에 北傀가 対外貿易에 이처럼 至大한 관심을 표명한 적도 일찌기 없었던 일이다.

新年辞의 輸送課業指示에서도 「貿易港을 개조·확장하여 船舶에 의한 수송을 적극적으로 開発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対外貿易에 대한 큰 関心表示와 関聯性이 있는 것이다.

北傀가 対外貿易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데는 몇가지 이유와 底意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첫째는 競争相対인 韓国의 対外貿易高가 127億달러를 넘어서서 선진국대열에 끼이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과, 둘째 무거운 対外負債를 수출에 의한 外貨獲得으로 해결해 보려는 심산이라 하겠다. 그리고 세째는 国際環境要因의 변화, 특히 日·中共友好平和条約締結과 美·中共国交正常化로 나타난 実用主義路線·現代化路線에 입각한 中共의 서방세계에의 접근에서

오는 충격을 줄이고, 中共의 이같은 方向転換의 교훈을 받아들이려는 用意와 자세 때문이라 하겠다.

네째는 소위 「불럭不加担国家」 및 新興勢力国家와 나아가 西方諸国에 대해 적극적인 平和攻勢를 펴는 한편 経済·文化 交流를 확대하려는 의도에서라 하겠다. 그리고 製品의 質向上 納品期日厳守 등으로써 대부분의 나라들이 経済去来를 기피하게 되고만 北傀의 「실추된 信用」을 회복하려는 고충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는 中·蘇로부터 받고 있는 援助가 만족스럽지 못할뿐더러 中蘇対立에서 요구되는 강력한 政治的·이데올로기적인 諸要因 때문에 원조에 대한 장래에의 期待가 不透明한 사실을 들 수 있다.

「社会主義思想은 있으나 社会主義陣営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公言된 그런 여건하에서 北傀는 社会主義兄弟党·형제국간의 유대와 프롤레타리아国際主義의 원칙에만 매달리고 있을 순 없으며, 제 3 세계와 西方世界에의 접근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직면케 되었던 것이다.

여섯째는 共産圏의 技術水準과 기계시설로는 北傀가 기대하는 技術習得과 기술향상이 어려운 점이다. 金日成이 西方 世界로부터의 技術導入을 강력히 시사하고 「日製機械는 言語解得에 용이할 뿐더러 体格的인 비슷한 조건 때문에 조작에 편리하다」는 내용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北傀의 対外貿易에의 지대한 관심표명과 적극적인 어프로치는 금년 5月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던 유엔貿易開発会議(UNCTAD)에 대표를 파견하였던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겠다.

이와같이 北傀는 전통적으로 고수해온 域内아우타르기体制를 開放体制인 対外貿易体制로 전환하기에 이른 것인데 이에 本論文은 변화를 겪고 있는 北傀의 対外経済政策의 基調 그 推移와 現況, 政策転換의 원인, 貿易収支의 만성적 赤字와 対外負債償還遅延問題, 第2次7個年計劃遂行과의 관련성 対南韓経済協力可能性問題, 対外経済政策의 展望 등을 중심으로 최근의 北傀의 対外経済政策을 分析評価하고자 한다.

一. 北韓의 對外經濟政策의 基本路線

1. 対外経済政策의 基調

같은 공산국가이면서도 蘇聯·東欧諸国·쿠바·蒙古 등은 코메콘(COMECON=東欧経済相互援助会議)에 가맹하여 공산권제국간의 国際分業·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東西間交易도 확대해 가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자립적 民族経済体制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北韓은 対外貿易이란 어디까지나 자립적 민족경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무역은 国家管理에 의한 計画貿易으로서 사회주의 공업화에 필요한 物資의 수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輸出은 수입에 필요한 外貨調達이라는 부차적인 의미만 가진다는 입장을 취한다 하겠다.

이같은 対外経済에 대한 政策基調는 金日成의 몇차례에 걸친 연설과 綱領的 敎示에 나타나 있다.

이를 발표의 順次에 따라 살펴보면 먼저 1962년 10월 23일 最高人民会議제 3기 제 1 차회의에서 「新国主義 나라들은 겉으로는 호상간의 친선과 단결을 주장하나 뒤에서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파괴공작을 하며 협력과 협조를 표방하면서 실

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른 나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5] 고 하여 経済援助에 따르는 援助国와 受援国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행사와 간섭을 비난하였다.

다음으로 이와 비슷한 내용의 発言은 1965年 4月14日 인도네시아의 알리 아르함社会科学院에서 행한 講義,「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社会主義建設과 南朝鮮革命에 대하여」에서도 했다.

「우리는 물론 国際的인 支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남의 나라의 원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적으로 유리한 기회가 도래하는 것만을 기다려 자기의 革命闘争을 약화시키고 他国의 원조만을 믿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려는 그릇된 思想観点과 태도를 배격한다.

革命闘争의 경우도 建設活動의 경우도 自力更生을 주로하고 외부의 支援은 第2主義的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같은 정신으로 闘争해서만이 자국의 革命과 建設을 최대한으로 促進하며 国際革命運動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6] 라고 하여 革命과 建設에서의 自力更生을 第1義的으로, 원조를 第2義的인 것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1965年 1月28日 貿易省 党総会에서 행한 연설에서「貿易은 우리나라의 社会主義建設을 다그치며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들 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은 흔히 처음에 무역에서 부터 시작되며

그리하여 점차 政治的 關係까지 넓게 되는 것이다」[7] 라고 하여 対外貿易 및 経済協力과 政治的 紐帯関係의 密接한 관련성을 지적하였다.

또 1967年 12月16日 最高人民会議제 4기제 1차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綱領」 즉 소위 10大綱領의 第8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自力更生의 깃발밑에 자신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자주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노선을 계속 견지해 나가면서 프롤레타리아国際主義原則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원칙을 바탕으로 각국과 경제관계를 맺고 무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8] 라고 하여 対外貿易을 상호평등과 호혜원칙의 기초 위에서 추진하되 共産圏市場을 제 1차적인 대상으로 삼을 것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서 이 共産圏市場에 제 1차적인 의의를 부여한데 대해 「社会主義市場, 이것은 사회주의나라들만이 아니라 新興独立国家들에게도 民族経済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有無相通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사회주의국가와 資本主義国家간의 経済的 連繫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우리는 우리의 自主権을 존중하고 우리나라와 경제적 연계를 가질 것을 바라는 社会制度가 相異한 모든 국가들과의 무역 및 通商交流関係를 발전시켜갈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국가와의 経済実務的 관계는 사회주의나라의 対外貿易에 있어서 어

더까지나 第2義的인 의의를 갖는 것이고, 그것이 対外経済関係에 있어서 基本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단정하고 있다. 공산권제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優先的으로 발전시키면서 「帝国主義의 속박을 벗어나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新生独立国과는 완전한 평등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적 관계를 맺고 通商交流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 하였다.

이처럼 사회주의市場의 강화·발전과 나아가 新生独立国家와의 경제관계강화를 주장하는 근원은 資本主義世界経済体制의 全般的 経済危機의 심화와 帝国主義의 팽창정책분쇄를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帝国主義者는 <援助>를 미끼로 다른 나라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고 나아가선 이들 나라의 自主権을 짓밟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오늘날 제국주의 열강이 떠들고 있는 <유럽共同市場>이나 <세계경제의 統合> 등은 모두 新生独立国의 경제적 자립을 말살하고 이들 나라를 종속시키려 하는 陰険한 侵略目的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못박았다.

이같은 주장을 미루어 보면 北傀의 対外貿易도 정치·외교활동 및 革命戦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물론이며 따라서 政経分離의 원칙을 분명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北傀의 対外経済関係의 基調는 6개년계획기간부터 변경되기 시작했다.

自力更生의 원칙하의 자립적 民族経済라는 경직되고 閉鎖的인 아우타르키体制만으로는 6개년계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식하였

기 때문이라 하겠다.

1970年代에 들어오면서 技術革新·経済構造改善·貿易拡大를 위한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転換을 가져왔던 것이다.

1975年 2月28日에 개최된 「全国工業熟誠者大会」에서 행한 金日成 연설에서 이 対外経済政策転換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주로 社会主義나라와 무역을 해 왔지만 지금부터는 신생독립국과 資本主義나라와도 크게 무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 종래와는 달리 자본주의 市場에로의 진출과 対西方貿易의 필요성 및 적극적인 수행을 강조했다.

그런데 1978年 9月9日 政権創建30周年記念中央慶祝大会에서의 金日成 연설에서 「나라의 政治的 独立을 공고히 하며 自主性을 완전히 실현하자면 自主的 民族経済를 건설하여야 한다. 経済的 自立은 정치적 독립과 자주성의 물질적 기초이다. 自主的 民族経済를 건설하여야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自主権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넉넉한 물질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9] 고 하고 이어 「自力更生의 革命的 原則을 달성함으로써 자체의 資源, 자체의 技術, 자체의 幹部에 의하여 움직이며, 多方面的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인 民族経済를 훌륭히 건설하였다」 하면서 자립적 民族経済建設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資本主義国家와의 貿易의 필요성에 대해선 一言半句의 言及이 없이 「제3세계나라들은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援助와 기술을 교류하여야 하며 특히 民族技術幹部를 교류하여 서로 진심으로

도와주고 배워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帝国主義·支配主義者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経済技術的 落後性에서 벗어나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닦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여 75年의 全国工業熱誠者大会에서의 対外経済政策의 前向的 姿勢에서 도로 후퇴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다가 다시 금년에 들어와선 対外貿易増大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말 金日成이 主宰한 党中央委第5期 第17次全員会議와 금년 新年辞에서 강조한 79年度 主要力点事業의 하나로 対外貿易強化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北傀의 対外経済政策基調의 時期別 특징을 보면 1950년대에는 「経済的 援助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1960년대는 제1차적 의의를 갖는 「政経一致의 원칙에 입각한 国内産業의 補完的 手段으로서의 域内貿易」과 그리고 第2義的인 政治優先原則에 입각한 新生独立国과의 経済的 紐帯강화였으며 이어 1970年代에 들어와선 政経分離原則下의 「資本主義諸国과의 交易増大」라 하겠다.

2. 対外経済運営面에서의 特徴

北傀의 対外経済運営面에서의 특징은 다른 모든 경제분야의 운영·활동과 같이 국가의 통제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1972년 12월27일에 改正 공포된 「社会主義憲法」 제34조를

보면 「対外貿易은 국가 또는 국가의 감독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対外貿易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 民族経済를 보호하기 위하여 関税政策을 실시한다」로 되어 있다.

이는 国家管理下에 계획되고 통제되는 計劃貿易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対外貿易은 対内経済에 종속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貿易去来는 社会主義経済建設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고 이들 輸入品에 대한 대금지불수단으로서 輸出이 이루어지는 「바터貿易制」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어 国際分業과 専門化란 対外貿易의 기능에 얽메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괴가 対外貿易面에서 고수하고 있는 몇가지 원칙을 들어본다면 다음과 같다. 하겠다.

첫째 重工業優先政策에 입각한 사회주의경제의 전통적인 開発方式이라 하겠다. 이는 蘇聯이 革命直後에 채택했던 방식인데 수입은 원칙적으로 消費財 보다는 기계류 중심의 生産財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다음 둘째는 輸出入均衡主義를 취하고 있다 하겠다. 수출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출은 수입의 支払手段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機能的 側面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세째로 双務協定貿易과 바타貿易主義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共産圏国家들도 그렇지만 특히 북괴의 경우 外貨가 부족하기 때문에 双務貿易協定을 締結하고 両国間에는 個別的인 貿易去

来期間과 交換可能性 通貨를 이용하는 現金接受를 피하고 輸出額과 輸入額을 協定된 所定의 通貨를 단위로 相互間에 스윙幅을 정하여 일정기간후에 残高만을 決済하는 清算決済形態를 취함으로써 金 및 外換을 가능한 限 사용하지 않고 교역을 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되고 있는 北傀의 対外貿易은 対象国의 社会体制에 따라 그 정책이 달라진다.

첫째 共産圏에 대해선 **政経一致의** 利害関係와 協同精神을 바탕으로 貿易関係의 발전과 調節을 꾀하고 있다.

둘째 中立国家에 대해선 그 국가의 성격(左傾 非同盟主義与否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中立国家에 대한 北傀의 国際的 地位向上 및 国際共産主義運動의 利害関係 등 정치적 입장을 앞세우면서 貿易関係의 拡大를 추구하고 있다.

세째 資本主義国家에 대해서는 오직 経済的 利害関係(주로 生産財 및 技術導入)에 입각하여 政経分離論을 내세우면서 유리한 貿易関係의 開設·拡張을 기도하고 있다 하겠다.

二. 北韓의 對外經濟政策의 推移와 現況

1. 対外貿易面에서의 推移와 現況

1) 対外貿易의 推移

北傀의 対外経済政策의 基調와 그 변화과정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対外貿易도 몇 차례의 단계를 거치면서 변천되어 왔다.

北傀의 対外貿易의 변천과정은 대체로 6段階로 구분되고 있다.

제1단계는 1945년 8·15해방부터 1950년 6·25動乱까지의 기간인데, 이 기간에는 対蘇一辺倒의 貿易去来가 이루어졌다. 즉 蘇聯의 経済援助와 기술지도로 경제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蘇聯에만 의존하여 貿易을 하였던 時期이다.

제2단계는 1950년 6월부터 休戦直前인 1953년 7월까지의 動乱期로 北傀는 이 기간에 정상적인 貿易去来는 중단한채 다만 蘇聯·中共·東欧 등의 공산권 국가에서 軍需物資를 수입하던 시기이다.

제3단계는 1953년 8월부터 1956년까지의 戦後復旧期로 소련 中共·東欧등 공산국가의 経済援助에 의해 戦後復旧 3개년계획 (1954 ~ 56년)을 수행했던 시기이다. 이 기간에는 戦後復旧에 필요한 機械플랜트·原料·資材등 資本財와 原資材를 수입하는 한편 鉄鉱石·非鉄金属·鉱物등 1次産品을 수출하였다.

제 4 단계는 제 1 차 5 개년계획 (1957 ~ 60 년) 기간인데, 北傀는 蘇聯·中共의 援助減縮 및 東欧諸国의 원조중결로 말미암아 경제건설에 차질이 생겨나자 輸出貿易振興에 의한 수입무역을 유도하는 대책을 수립한 시기이다. 57년 이후 共産圈諸国의 원조삭감으로 外貨가 부족하게 되자 輸出貿易增大를 기도하고 外貨獲得에 주력한 결과 수출상품중 原資材比重은 감소되는 반면 半製品比重은 증가되었다.

제 5 단계는 7 개년계획 (1961 ~ 70 년) 시기로 北傀는 이 기간에 사회주의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重化学工業 및 軍需工業에 필요한 資本財와 資材導入을 증대시켰다. 그 결과 수출을 主軸으로한 貿易增大를 위하여 共産圈市場偏重에서 벗어나 輸出市場을 多辺化하는 동시에 수출상품의 加工度를 높이면서 半製品의 수출을 증가시켰다.

제 6 단계는 6 개년계획기 (1971 ~ 76 년) 와 그 다음 시기이다. 北傀는 6 개년계획에서 重化学工業의 量과 質을 높이고자 外債償還計劃 없이 機械플랜트 등 資本財를 대량도입함으로써 輸出貿易增大는 北韓経済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로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北傀는 共産圈市場為主型에서 自由圈市場貿易型으로 전환하였고 西方先進諸国을 資本財輸入市場으로 開発途上国을 商品輸出市場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外貨稼得率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출품을 半製品에서 完製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으나 世界市場与件의 변동과 北傀의 지나친 資本財導入으로 마침내 약 25억달러의

負債를 짊어지게 되었다. 이 부채의 償還問題로 北韓經濟는 심각한 곤경에 빠지게된 時期이다.

이같은 6단계를 거쳐 변천해온 北傀貿易의 主要年度別 推移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統計를 구하려는 사람은 失望하게 되는 나라」라는 말이 있는 北傀이기에 歲入·歲出과 基本建設事業 및 石炭, 電力, 肥料, 穀物 등 主要産業部門에 대한 통계를 제외하고는 일체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 발표하는 통계숫자도 정책적인 고려 때문에 加減造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역통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따라서 北傀의 公式発表가 없는 무역통계를 추적하려면 부득이 IMF (世界通貨基金)나 IBRD(世界銀行), 유엔 및 OECD (経済開発協力機構), 그리고 蘇聯의 貿易年鑑과 各 年報 및 月報 각종 정보자료와 交易相対国의 무역통계에 의해 파악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자료에 의해 무역통계는 6·25로 인해 무역이 전면 중단되었던 1950년부터 1952년 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밝혀져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北傀의 年度別 貿易総額増額 추세를 보면 1946년에 2,280만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1949년에는 1억 8,230만달러로 늘어났던 것이다. 그러다가 6·25로 貿易이 전면중단되었기에 休戦이 성립된 1953년에는 7,300만달러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6·25 바로 전해인 1949년에 비해 40%밖에 안되는 숫자이다.

다음해인 1954년에도 6,830만달러로 계속 감소되었고, 1955년에 가서야 약간 증가한 1억 530만달러였다. 이해부터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1956년은 1억 4,030만달러, 1957년은 2억 1,480만달러, 1958년은 2억 9,000만달러, 1959년은 3억 4,800만달러였다. 이 숫자는 1949년의 1억 8,230만달러에 비해 10년간에 1.9배나 증가한 것이 된다.

그러나 다음해인 1960년은 3억 2,000만달러로 1959년에 비해 6.9%정도 감소되었고 1961년 역시 3억 2,640만달러로 비슷한 숫자이다.

그러다가 1962년부터 소폭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1962년은 3억 5,250만달러, 1963년은 4억 2,080만달러, 1964년은 4억 1,560만달러, 1965년은 4억 4,110만달러, 1966년은 4억 6,340만달러, 1967년은 5억달러, 1968년은 5억 8,280만달러, 1969년은 6억 9,610만달러로 1959년에 비해 약 2배나 증가했다.

그런데 6개년계획을 시작한 197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는 규모면에 상당한 확대현상을 보이다가 貿易代金의 支払遅延事態가 본격화한 1974년부터는 규모면에서 축소되어 1975년에는 前年対比 10%~1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70년 이후의 貿易推移를 表로 나타내면 <表1>과 같다.

<表 1>　　北傀의 貿易推移 (1970 년이후)

(単位 : 千달러)

年度別	輸 出	前年比增加率	輸 入	前年比增加率	貿易收支
1970 ①	300,900	-	328,200	-	△ 27,300
1971	301,933	0.4	564,078	71.9	△ 262,145
1972	398,950	32.1	639,700	13.4	△ 240,750
1973	497,700	24.8	842,700	31.7	△ 345,000
1974	677,200	36.1	1,303,100	54.6	△ 625,900
1975	813,957	20.2	1,092,681	△ 16.1	△ 278,724
1976 ②	658,100	△ 19.1	828,800	△ 24.1	△ 170,700

資料 : IMF & IBRD, Direction of Trade 各年報 및 月報

UN, Commodity Trade Statistics 各年報

OECD, Trade by Commodities 各年報

註 ①은 対中共貿易額이 包含되지 않았고 ②는 外務部 発表数値임.

<表 1 >에 따르면 1970 년은 6 억 2,910 만달러로 1969 년 보도도 적지만, 여기엔 対中共貿易額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그렇다. 여기에 対中共貿易額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輸出 3 억 6,600 만달러 輸入 4 억 3,900 만달러로 합계는 8 억 500 만달러로 되는 셈이다.[10)]

1971 년은 8 억 6,600 달러, 1972 년은 9 억 3,865 만달러, 1973

년은 13억 4,040 만달러, 1974 년은 19억 8,030 만달러로 大幅增加했다. 그런데 주목해야할 사실은 1971 년부터 1974 년까지 輸入이 輸出의 거의 2倍에 이르고 있으며 貿易赤字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1975 년은 輸出入規模가 19억 663 만달러, 1976 년은 14억 8,690 만달러인데, 1974 년까지에 비해 輸出入隔差 및 貿易赤字幅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다.

1977 년이 15억달러로서 1969 년에 비해 약 2.1배의 成長을 나타내고 있다.[11] 한 것이다.

北傀의 対外経済政策은 국제외교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며, 対外貿易政策 및 貿易趨勢도 北傀의 対内外環境과 불가분의 관련을 갖고 있다.

특 蘇聯·中共·東欧등 공산제국의 원조가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던 戰後復旧 3 개년계획기간은 4大軍事路線을 내세우고 非生産的인 국방건설에 주력한 1960 년대초반과 外債問題가 対外貿易의 障害要因으로 작용한 1970 년대 전반에는 貿易規模가 감소되거나 확대하지 못했다.

반면 共産圈市場偏重에서 自由市場貿易為主型으로 전환하였을땐 무역규모가 크게 늘어난 추세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北傀의 수출입관계와 貿易收支面의 特徵을 살펴보면, 수출은 비교적 일정한 類型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수입은 增減規模에서 심한 振幅現象을 나타내었다 할 수 있다.

北傀의 対外貿易収支는 1962년 1966년, 1967년의 3개년을 제외하고는 1949년이후 매년 赤字를 보여 왔다.

赤字幅에 있어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몇몇 年度를 제외하곤 비교적 均衡貿易에 가까운 근소한 赤字幅을 보였으나 資本財를 大量導入한 1970년대에는 赤字幅이 2억~6억달러에 이르는 현저한 不均衡貿易現象을 노출시켰다.

北傀의 무역적자로 인해 累積된 対外負債는 약 20억~25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 막대한 外債를 償還하지 못해 北韓経済가 곤경에 빠져들게 되었다.

2) 地域別 貿易構造

北傀는 현재는 100여개국과 貿易去来를 하고 있으며, 共産 16개국을 비롯 中立 33개국, 西方 14개국 등 63개국과는 貿易協定을 체결하고 있다.

主要貿易相対国을 보면 ⓐ共産圏에선 蘇聯·中共·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이고 ⓑ 西方諸国에선 日本·프랑스·西独·스웨덴·오스트리아·캐나다·핀란드·오스트레일리아·英国·벨기에·덴마크·이탈리아·스위스·和蘭·노르웨이·아일랜드 등이며, ⓒ 開発途上国으로선 홍콩·印度·파키스탄·싱가포오르·이집트·레바논·이락·사우디 아라비아·쿠웨이트·방글라데쉬 등이다.

北傀의 地域別 貿易構造 중 먼저 圏域別 構造를 보면 8·15 이후 1960년대 前半까지는 対共産圏과의 무역이 総貿易額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63년 日·朝貿易이 본격화되면서

부터 西方諸国과의 교역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1965년의 경우 対共産圏貿易比重이 89.1%이던 것이 1970년에는 81.2%로 감소되었다.

1971년 이후의 圏域別 輸出入推移를 보면 먼저 輸出의 경우, 対共産圏諸国輸出은 1971년에 全体輸出의 77.7%를 차지하였는데 反해 対資本主義諸国輸出은 22.3%에 불과했다. 1973년부터는 前者의 비중이 점차로 감소된 반면 후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1974년에는 전자가 59.4%, 후자가 40.7%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나 1975년부터는 다시 전자의 비중이 높아갔다. 즉 1975년에 対共産圏諸国이 61.5%, 対資本主義諸国이 38.5%, 1976년에는 전자가 67.6%, 후자가 32.3%의 비율로 되었다.

다음 輸入의 경우를 보면, 1971년에 対共産圏諸国輸入은 全体輸入의 88.6%였으나 1974년에는 39.7%로 무려 48%나 減少되었다. 1975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1976년에는 64.9%에 이르렀다.

対資本主義諸国輸入比重은 1971년에는 11.4%에 불과하였던 것이 1974년에는 60.3%로 4년간에 무려 12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 対共産圏諸国輸入을 上廻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5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1976년에는 35.1%의 비중을 나타냈다.

1971년이후의 北傀의 圏域別 輸出入推移를 표로 나타내면 <表 2>·<表 3>과 같이 된다.

<表2> 北傀의 圈域別 輸出推移

(単位：千달러)

年度別 / 総輸出額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総 輸 出 額	301,933 (100.0)	389,950 (100.0)	497,700 (100.0)	672,200 (100.0)	813,957 (100.0)	658,100 (100.0)
対共産圈諸国	234,433 (77.7)	313,650 (78.6)	355,500 (71.4)	401,100 (59.3)	500,557 (61.5)	445,600 (67.6)
対資本主義諸国	67,500 (22.3)	85,300 (21.4)	142,200 (28.6)	276,100 (40.7)	313,400 (38.5)	212,500 (32.4)

<표 3> 北傀의 圈域別 輸入推移

(単位：千달러)

年度別 / 総輸入額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総 輸 入 額	564,078 (100.0)	639,700 (100.0)	842,700 (100.0)	1,303,100 (100.0)	1,092,681 (100.0)	828,800 (100.0)
対共産圈諸国	499,778 (88.6)	482,800 (75.5)	506,500 (60.2)	516,700 (39.7)	531,971 (48.7)	538,000 (64.9)
対資本主義諸国	64,300 (11.4)	156,900 (24.5)	335,500 (39.8)	786,400 (60.3)	560,700 (51.3)	290,800 (35.1)

※ <표 2>·<표 3>의 資料는 <표 1>의 자료와 같음.

다음으로 主要貿易対象国중 몇개 나라만을 골라 対象国別 貿易構造를 살펴 보고자 한다.

가) 蘇聯~소련은 1960년대까지 北傀의 対外貿易의 国別貿易構造에서 제1위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해방이후 1960년대말까지 北傀의 対蘇貿易은 그 비중에 있어 80%이상을 차지한 적도 있었다. (1946년엔 81.1%, 1955년엔 80.7%)

이같은 北傀의 対蘇貿易依存度는 戰後復旧 3개년계획(1954~56년)을 수행중이던 1955년을 頂点으로 하여 수그러지기 시작, 제1차 5개년계획기(1957~60년)에는 상당한 정도 약화되었다.

다시 7개년계획기(1961~70년)의 초기에는 依存度가 높아졌다가 1963년부터 다시 低下되고 1967년부터는 또다시 의존도가 높아졌다.

1974년까지도 北傀의 対蘇輸出이 가장 많아 北傀의 対共産圈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안팎이었으나 1975년부터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1976년에는 北傀의 対中共輸出 보다도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輸入의 경우에는 蘇聯에서의 輸入이 比重上에서는 下落하고 있었지만 共産圈에서는 가장 큰 輸入先으로서의 구조엔 변화가 없다.

그런데 이처럼 北傀의 対蘇貿易의 비중이 時期別로 浮沈現象을 나타낸 것은 北傀의 対蘇 및 対中共関係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北傀의 対外貿易에서 政治的 外交関係가 地域別 貿易構造에 막대

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対蘇貿易比重만이 아니라 対蘇貿易収支에서도 분명히 드러나 있다.

北傀는 소련과의 교역에서 그 収支가 慢性的인 赤字를 나타냈지만 (1955 ~ 68 년간의 貿易収支赤字 累積額이 3,670 萬달러) 그 赤字現象에서도 하나의 뚜렷한 패턴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1955 ~ 59 년간에는 1957 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貿易収支가 赤字로 同期間 (57 년 제외) 중의 赤字幅이 3,700 만달러였다. 그 다음 1960 년부터 1966 년간에는 逆転되어 5,390 만달러의 黒子를 나타냈고, 1967 년에 들어와서부터는 다시 赤字로 되어 1966 년 67 년 두해 동안의 貿易収支는 악화되어 각기 5,130 만달러와 6,500 만달러 赤字를 나타냈다.

이같은 対蘇貿易에서의 貿易収支의 起伏現象은 양국간의 외교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北傀의 対蘇貿易에 있어 蘇聯과의 友好関係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貿易収支赤字幅을 증대시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소련으로부터의 원조나 借款供与를 보다 용이하게 얻어낼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였기 때문인듯 하다. 이는 소련이 北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는 원조를 중단하기도 하고 負債償還을 요구한 例도 있기 때문이다.

金日成이 1965 년 4 월 14 일 인도네시아의 알 아르함社会科学院에서 행한 講義에서 「修正主義者는 <国際分業>을 운운하면서 우리党의 重工業建設方針에 반대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機械製作工業을 발전시킬 필요가 없고 鉱石 기타 原料나마 생산하고 있으

면 된다고 했다. 물론 우리는 이같은 의견에 따를 수가 없다」[12] 고 비난한 것도 이어 「우리는 결코 諸国間의 経済協力에 반대하거나 門戸를 닫아서 社会主義를 건설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経済協力>과 <国際分業>을 구실로 他国経済의 자립적 종합적인 발전을 억누르고 나아가 그 나라의 경제를 自国에 묶어매려는 大国主義的인 경향이다」고 화풀이한 것도 그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도 朝蘇간의 무역거래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両国간의 貿易額은 3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3] 는 것이다.

나) 中共~北傀貿易에서 中共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上昇하여 1964 ~ 66년간에는 소련을 능가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다가 1966년 中共의 文化大革命이후 몇년동안은 무역량이 크게 줄어들어 1964 ~ 66년간에 北傀의 対外貿易에서 차지한 対中共貿易比重이 약 40%이던 것이 1969년에 이르러서는 15.9%로 低下되었다.

그런데 北傀의 対外貿易에서 中共의 比重이 커진 기간은 中蘇紛争에서 北傀가 中共편을 든 기간이며, 반대로 対中共比重이 低下된 기간은 北傀가 親蘇的인 입장을 취하던 시기와 일치되고 있다.

1957년에 北傀는 対中共貿易에서 600만달러의 赤字를 기록했으며, 1969년에는 対中共輸出入規模가 5,500만달러 水準에서 대체로 균형을 이루었던 것이다.

北傀의 対中共輸出은 70년대에 들어와서 그 비중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1975년까지는 対蘇輸出에 뒤졌으며, 76년에 가서야 逆転되어 中共이 北傀의 가장 큰 輸出市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다) 日本~西方国家중 日本이 가장 큰 交易相対国으로서 1961년부터 1967년까지 北傀의 対西方国総貿易量의 53.3%를 日本이 차지했고 그 다음이 홍콩이었다.

그러던 것이 1969년에 이르러선 日本의 比重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北傀와 西欧와의 교역이 급격히 증가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北傀의 対西方貿易比重이 현저하게 伸張했다.

그런데, 日·北傀間의 무역은 1956년 6월 日本의 4個商社代表와 朝蘇貿易会社간에 直接貿易이 아닌 中共経由로 去来가 성립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시작되었으며 3단계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1단계는 1956 ~ 71년까지의 기간으로 貿易去来額도 4,000만 달러 未満의 초기단계이며, 제2단계는 1972 ~ 74년에 걸친 기간으로 日·朝貿易의 飛躍段階이고, 제3단계는 1975 ~現在에 이르는 소위 「低迷期」이다.

日·朝貿易統計를 표로 나타내면 <表4>와 같다.

<표 4>　　北傀・日本間　貿易統計

(単位：1,000달러)

年度別	北傀의 輸入	北傀의 輸出	合　計	收　支
1961	4,938	3,976	8,914	- 962
1962	4,781	4,553	9,334	- 228
1963	5,347	9,430	14,777	4,083
1964	11,284	20,231	31,515	8,947
1965	16,505	14,723	31,228	- 1,782
1966	5,016	22,692	27,708	17,676
1967	6,370	29,606	35,976	23,236
1968	20,748	34,032	54,780	13,284
1969	24,159	32,186	56,345	8,025
1970	23,344	34,414	57,758	11,070
1971	28,907	30,059	58,966	1,152
1972	93,443	38,311	131,754	- 55,132
1973	100,160	72,318	172,478	- 27,842
1974	251,914	108,824	360,738	- 143,090
1975	180,630	64,839	245,469	- 115,791
1976	96,056	71,627	167,683	- 24,429
1977	125,097	66,618	191,715	- 58,479
1978	183,347	109,862	290,209	- 76,485
1979, 1~3	71,000	49,000	120,000	- 2,200

資料：①1961 ～ 77년　輸出入統計数字는　日・朝貿易協会,「日朝貿易」 No.170, 78.10.15.

②1978년　輸出入統計数字는　「日朝貿易」 No.177, 79.2.15

③1979년 1～3月　輸出入統計数字는　中央日報, 79.5.17字

제 1 단계는 <表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貿易去来量도 적고 쌍방간 日·朝貿易이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제 2 段階에 들어와서 北傀의 対日輸入이 2억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1971 년까지의 日·朝貿易은 항상 日本이 入超現象을 보이고 있었으나, 제 2 단계에서는 日本의 出超現象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北傀의 対日貿易依存度는 전체의 20%로 증대되었다. 반면 이 당시인 1974 년의 日本의 対北傀貿易依存度는 불과 0.31%에 그쳤다.

이 제 2 단계의 日本의 出超部分이 比傀의 対日債務로 되었다.

제 3 단계는 日本通産省貿易局이 「北朝鮮은 多額의 債務를 안고 있기 때문에 長期借款이라도 도입하지 않는 限, 対日貿易은 現時点에서 당분간 縮小均衡이라는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縮小均衡 低調状態에 놓여 있다.

日·朝貿易에 있어선 극심한 対日貿易 逆調現象을 나타내고 있는데, 貿易規模面에 있어서는 1977 년도에 1억 9,171 만 5,000 달러인데 비해 1978 년도에는 2억 9,020 만 9,000 달러로 9,849 만 4,000 달러가 증가되어 前年比 51.4%가 증가하였으나, 貿易収支面에 있어서는 1977 년도에 5,847 만 9,000 달러의 貿易赤字를 낳았고 1978 년도에는 前年보다 1,800 만 6,000 달러가 증가하여 7,648 만 5,000 달러의 貿易逆調現象을 보였다.

라) EEC 諸国～1970 년대에 들어와서 北傀와 EEC와의 交易이 늘어나 対EEC輸出比重이 크게 늘어난 反面 対日本輸出比重이

점차 줄어드는 構造를 나타내었다.

EEC諸国중에는 西独에 대한 수출이 가장 크게 늘어나 1971년에 17.3%의 비중이던 것이 1976년에는 30.6%의 비중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対프랑스輸出도 1976년에 9.4%로 北傀의 対資本主義先進国輸出에 있어서 3위의 輸出先이다.

3) 貿易商品構造

北傀의 対外貿易商品構造에서 輸出品은 1970년대 이후 完製品의 비율이 얼마간 높아졌으나 아직은 鉄鉱石·無煙炭·重石등 1次産品과 鉄鋼, 非鉄金属, 亜鉛, 마그네샹크링카 등 加工度가 낮은 中間財와 農水産物이 主宗을 이루고 있다. 이밖에 低級의 工作機械를 비롯한 鋼材, 金属製品, 化学肥料, 工具類, 시멘트 등도 수출하고 있다.

한편 輸入構造를 보면 기계류, 輸送機械類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主宗商品은 각종 공작기계, 圧延設備, 機械機器, 電気機械, 베아링, 船舶, 화물자동차, 医療器, 알루미늄製品, 生고무, 타이어, 설탕, 小麦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北傀의 무역구조는 전형적인 垂直交流形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高度의 기술을 요하는 重化学工業製品의 수입에서 오는 外貨負担의 가중되는 圧迫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北傀의 対外貿易商品構造는 시기와 대상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이다.

北傀対外貿易商品의 구조를 主要時期別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60年代까지의 輸出商品構造

1950년대 初期까지는 鉱物輸出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였는데 1953년의 경우 総輸出額의 81.8%를 차지하였고, 1956년에는 54.3%를 차지하였는데, 1959년에 이르러선 14.5%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1960년에는 12.8%, 1963년에는 12.4%, 1964년엔 11.5%, 1969년에는 7.2%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鉄 및 非鉄金属의 輸出比重이 크게 늘어나, 1953년엔 9.0%에 불과하던 것이 1956년에는 30.9%로 크게 늘어났으며, 1959년 33.4%, 1960년 43.7%, 1963년 46.3%, 1964년 49.9%, 1969년에는 조금 떨어졌긴해도 39.6%로 大幅増加하였다.

그리고 農業副産品과 建材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1969년에는 각각 1.0% 이상의 수출비중을 차지했고 化学製品과 기계류 및 装備類의 수출비중이 8~5%로서 이같은 品目들이 1960년까지의 輸出大宗品이었다.

②. 1960年代까지의 輸入商品構造

北傀의 輸入商品構造는 8·15이후에서 6·25전후에는 消費品 및 日用品輸入이 主軸을 이루어왔으나 1950年代 初부터는 기계류와 装備類의 수입이 大宗을 이루게 되었다.

기계 및 装備類輸入比重이 1953년에는 34.3%, 1956년 32.7

수입품목은 褐炭, 石油, 棉花, 生고무, 사탕, 構造鋼 등이다.

㉯ 対東欧圈貿易商品構造

주요수출품목은 鋼鉄, 기계, 工具, 半製品(鉄 및 非鉄金属) 化学製品 및 同類似品 등이고 輸入品目은 資本財인 기계 및 装備가 대종을 이룬다.

北傀가 부족을 느끼는 物資는 精密機器, 特殊機械, 工具, 베어링, 타이어, 디젤엔진, 電動機, 人造고무, 와이어로프, 케이블線, 콕스, 鋼管설비, 発電 및 필름製品 플랜트 등이라 하겠다.

그리고 쿠바와의 交易은 1959년에 시작되었고 1967년까진 小量에 불과했으나 그후 크게 늘어나 貿易量은 1967년에 1,730만달러, 1968년에 1,670만달러에 이르렀다. 北傀는 貿易収支上의 黒字를 나타내는 好調를 보이기도 했다. 쿠바에 工業製品을 수출하고 설탕, 투우프 등을 수입했다.

㉰ 対西方貿易商品構造

北傀는 日本·西欧 등의 先進工業国家로부터 기계, 플랜트 등의 資本財를 수입하는 한편, 工業原料 및 半製品(金属 및 金属粗製品) 및 농산물 등을 수출했다.

北傀의 対유럽輸出은 거의 半製品原料(1965~68년기간 총수출의 약 90%)와 원료(약 8%)로 구성되고 있었다.

北傀의 유럽에서의 수입품목은 주로 기계류 및 運搬用 機器類인데 32%를 차지하고 있다. 半製品의 수입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리고 北傀는 工業製品을 아시아, 아프리카의 開発途上国에 수출

%, 1959년 34.8%, 1960년 22.5%, 1963년 23.6%, 1964년 21.2%, 1969년 30.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北傀의 工業化政策에 따르는 플랜트 각종 기계류 및 裝備의 輸入需要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다음 燃料 및 燃料用油의 수입량이 많아, 그 수입비중이 1953년의 9.8%에서 1960년의 18.3%, 1963년의 22.3%, 1964년의 22.1%, 1969년의 19.3%로 증가하였다. 이같이 燃料 및 燃料用 기름의 수입비중이 높은 이유는 良質의 石炭과 油類 자원 부족에다 工業発展 및 軍需産業部門에서의 에너지 資源需要增加 때문이라 하겠다.

③ 1960年代까지의 国別 貿易構造

㉮ 対蘇貿易商品構造

北傀의 対蘇貿易商品構造는 北傀의 총체적인 貿易商品構造와 비슷하다. 輸入品目은 機械 및 장비(完製플랜트 包含)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輸出에서는 한때 大宗을 이루었던 金属鉱의 우위가 사라지고 一次加工된 金属 및 鉄·鉄鋼製品 등과 半製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注目을 요하는 사실은 수출액은 비록 적지만 蘇聯에 가끔 쌀을 수출했던 일이다. 1965년에는 한번에 6백10만달러어치의 쌀을 수출했던 것이다.

㉯ 対中共貿易商品構造

北傀의 수출품목은 機械工具·銑鉄, 金属 및 合金이고

하고 그나라들로부터 原料와 穀物을 수입했다.

또 北傀는 開発途上国들로부터 수입하는 品目중에는 低順位의 消費財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정치, 외교적 유대강화를 위한 政策的 輸入이라 하겠으며, 수출을 시도하기 위한 長期的 投資까지 고려하고 있는듯 하다.

㈐ 対日貿易商品構造

北傀는 対日本貿易에 있어서도 対유럽貿易에 있어서와 같이 기계, 플랜트 등의 資本財를 수입하고 工業原料, 半製品 農産物 등을 수출한다.

北傀의 対日本貿易商品構造를 표로 표시하면 <表5>가 된다.

<表 5>　　北傀의　対日貿易商品構造 (1963 ～ 69)

(単位 : 千달러)

商品類別	北傀의 輸出			北傀의 輸入		
	貿易額	年平均	構成比	貿易額	年平均	構成比
			(%)			(%)
食料品 및 산 動物	11,864	1,695	7.3	345	49	0.4
食料 및 煙草	158	23	0.1	3	-	-
非食用 原材料	63,493	9,097	39.0	3,074	439	3.4
鉱物性 燃料, 潤滑油	5,593	799	3.4	354	51	0.4
動物性 및 植物性 油脂	32	3	-	1,576	225	1.8
化学製品	604	86	0.4	16,394	2,336	18.3
原料別 製品	80,808	11,544	49.6	34,566	4,938	38.7
機械類 및 運搬用機器類	74	11	-	26,820	3,831	30.0
雑製品	259	37	0.2	4,486	641	5.0
其 他	24	3	-	1,807	258	2.0

資料 : Handbook for Japan-North Korea Trade 1970, PP.511 ～ 540.

④ 1970 년대의 対外貿易商品構造

北傀의 対共産圈貿易에서 交易量이 많은 소련(1976년 北傀의 対蘇輸出이 対共産圈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5%, 수입은 45.1%였다)을 대상으로 하여 그 貿易商品構造를 보면 다음과 같다.

北傀의 対蘇輸出商品은 圧延鋼鉄, 마그네샤크링카를 주축으로 한 燃料, 鉱物原料, 金属의 수출이 가장 많고, 이외에 건설재료 및 部品 그리고 穀物을 주축으로한 식료품 및 소비재품과 機械設備 및 수송장비의 수출이 大宗을 이루고 있다.

輸入에 있어서는 기계설비와 輸送装備, 연료, 鉱物原料 및 금속의 수입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対資本主義諸国에 대한 貿易商品構造를 보면 수출의 경우, 原料別製品과 식용이 아닌 原材料(鉱物性 燃料除外)의 수출이 大宗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用途別로 분류하면 原資材(공업용)의 수출이 지배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輸入의 경우 機械類 및 수송용 機器類의 수입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用途別로 분류했을 때는 一般機械를 주축으로 한 자본재의 수입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 北傀의 対資本主義諸国과의 貿易商品構造는 北傀의 対蘇聯貿易商品構造에 비해 훨씬 垂直的인 貿易商品構造型을 이루고 있다 하겠다.

그런데 北傀의 수출입상품구조상 관심을 끄는 것은 蘇聯, 인도네시아, 싱가포오르, 홍콩 等地에 쌀을 수출하고 그대신 価格이 싼

밀가루를 비롯한 雜穀을 수입하고 있는 사실이다.

北傀의 食糧輸出入 現況은 <表6>과 같다.

<表6> 北傀의 食糧輸出入 現況

(単位:萬t)

年度	쌀 輸出	雜穀輸入
1971	15	27.6
1972	12	30.2
1973	15	149.8
1974	20	138.8
1975	-	29.9
1976	2.5	25.2
1977	20	23.0
1978	52 (계 획)	

資料: コリア評論 및 北傀放送綜合

다음 北傀의 対日貿易商品構造를 보면 対日輸出의 경우, 1977년도에는 亜鉛塊가 1,785만 4,000달러로 26.8%, 鉛塊가 1,072만 5,000달러로 16.1%, 누에고치가 450만달러로 6.5% 등 年間輸出額의 약 50%를 차지하였으며, 1978년도에도 前年과 같이 鉛塊가 1,731만 1,000달러로 16.2%, 亜鉛塊가 1,072만 5,000만달러로 15.3%, 누에고치가 1,186만 2,000달러로 11.1%, 野菜가 786만 2,000달러로 7.5%등 1次生産品이 대종을 이루었다.[14]

対日輸入은 機械類를 비롯하여 産業全分野에 걸쳐 고루 輸入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北傀는 軍需産業에 注力하였기 때문에 일반産業分野는 落後性을 못 면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北傀의 1977년과 1978년의 対日主要輸出入品을 표로 나타내면 <表7>, <表8>, <表9>, <表10>이 된다 하겠다.

<表 7>　　北傀의　1977年　対日主要輸出品

区分	品目	単位	数量	金額 (1,000달러)	比率 (%)
金額順位	輸出合計			66,618	100.0
1	亜鉛塊	MT	26,925	17,820	26.8
2	鉛塊	〃	14,392	10,719	16.1
3	마그네샤크링카	〃	37,942	4,490	6.7
4	누에고치	KG	438,175	4,323	6.5
5	亜鉛精鉱	MT	25,510	3,310	5.7
6	銑鉄	〃	29,161	2,864	4.3
7	滑石	〃	32,000	2,070	3.1
8	無煙炭	〃	40,060	1,818	2.7
9	기타의野菜	KG	849,750	1,725	2.6
10	성게알젓	〃	245,426	1,592	2.4
10個順位合計				52,428	78.7

資料：日朝貿易協会，「日朝貿易」，No.155，1978.2.15.
註：輸出換算率平均値인　271,74엔＝1달러로　換算한　것임.

<表 8>　　北傀의　1977年　対日主要輸入品

区　分	品　目	単位	数　量	金　額 (1,000달러)	比率 (%)
金額順位	輸入合計			125,097	100.0
1	人造繊維의 短繊物 (포리에스테르)	KG	6,593,900	5,966	4.8
2	除草剤	〃	2,007,600	5,305	4.2
3	合成繊維繊物 (포리에스테르 85%이상)	〃	345,599	3,257	2.6
4	알루미늄 構造物	MT	270	3,157	2.5
5	貨物自動車	No	294	2,988	2.4
6	鉛鉱	MT	6,964	2,322	1.9
7	合成繊維繊物 (다이어코드繊物)	KG	992,328	2,286	1.8
8	기타의 機械類	No	653	2,162	1.7
9	送信機 및 送受信機器	〃	394	2,002	1.6
10	輸送通信機器	〃	171	31,002	1.6
10個順位 合計				31,399	25.1

資料：<表 7>과 같음
註：輸入換率平均値인 269.88엔＝1달러로 換算한 것임.

<表 9>　　北傀의　1978年　対日主要輸出品

区　分	品　　目	単位	数　量	金　額 (1,000달러)	比率 (%)
金額順位	輸出合計			106,862	100.0
1	鉛　塊	MT	18,691	17,260	16.2
2	亜鉛塊	〃	26,438	16,354	15.3
3	누에고치	KG	754,050	11,888	11.1
4	野　菜	〃	1,046,220	7,746	7.3
5	銑　鉄	MT	56,858	6,584	6.2
6	대구알(塩蔵)	KG	1,783,478	5,924	5.5
7	마그네샤크링카	MT	44,289	5,436	5.1
8	대합조개(活生鮮, 冷蔵, 冷凍)	KG	5,378,258	5,123	4.8
9	滑　石	MT	45,590	3,197	3.0
10	연어 및 송어(冷凍)	KG	1,807,760	2,868	2.7
10個順位合計				82,497	77.2

資料：日朝貿易会，「日朝貿易」，No.177，1979.2.15

註：輸出換率平均値인　208.27엔＝1달러로　換算함.

<表10>　　北傀의　1978年　対日主要輸入品

区　分	品　　目	単位	数　量	金　額 (1,000달러)	比率 (%)
金額順位	輸　入　合　計			183,347	100.0
1	人造繊維의　短繊物 (포리에스테르)	KG	8,600,000	8,689	4.7
2	TV 放送用受像機 (칼러用)	No	25,561	6,619	3.6
3	除　草　機	KG	1,784,000	5,860	3.2
4	冷　凍　機	No	76	3,985	2.2
5	貨物目動車	〃	310	3,845	2.1
6	고무製벨트 (콘베이어 · 엘리베이터用)	KG	806,954	3,145	1.7
7	기타의　機械類	〃	248,445	3,029	1.7
8	電力케이블 (導体가　銅製)	〃	663,933	2,613	1.4
9	알루미늄의　構造物	MT	168	2,507	1.4
10	粟鋼板 (電気鋼板)	〃	2,105	2,474	1.4
10個順位合　計				42,903	23.4

資料 : <表9>와　같음.

註 : 輸入換率平均値인　206.9엔 = 1달러로　換算한　것임.

4) 対外貿易機構

北傀의 対外貿易은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국가의 監督下에 수행되기 때문에 対外貿易機関이란 곧 党·政権機関 그 자체이거나 그 傘下機関일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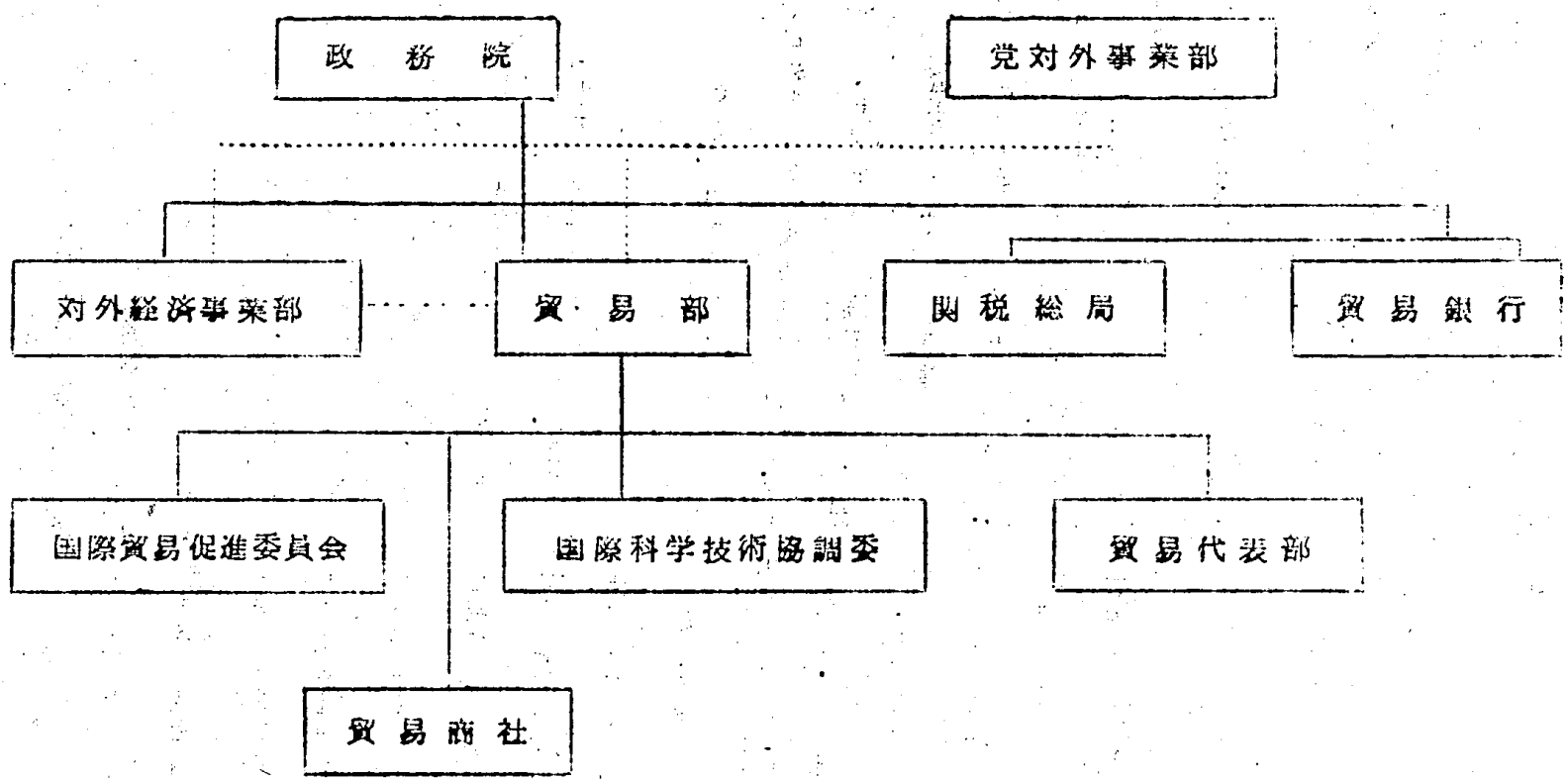
北傀의 対外貿易 및 経済協力関係 기구는 政務院 貿易部 및 対外経済事業部와 労動党中央委 対外事業部로 나누어져 있다.

이중 党의 対外事業部는 모든 대외경제관계 및 科学, 技術交流問題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 결정하고 政務院傘下機関의 業務를 조정하며 감독권을 행사하는 統制的 機能을 가진 최고의 貿易 및 対外経済機関이다.

政務院의 貿易部는 무역업무의 실무전담기구이고, 対外経済事業部는 무역무의 업무가 수행되기 까지의 諸般外交的 措置 및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 하겠다.

北傀의 貿易機構를 図表로 나타내면 <表11>과 같이 된다 하겠다.

<表 11>　　北傀の　貿易機構


政　務　院
党対外事業部
対外経済事業部
貿　易　部
関税総局
貿易銀行
国際貿易促進委員会
国際科学技術協調委
貿易代表部
貿易商社

가) 貿易部

무역에 관한 계획수립과 이의 집행에 따르는 貿易関係行政을 담당하고 있으며 外貨支給의 許可 및 외국과의 通商協定 支払協定을 체결하는 실무 등을 관장하고 있는데 구체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貿易関係를 개선하기 위한 方案들을 수립 실시한다. ② 관할하에 있는 貿易商社 및 기관에 대한 통제와 업무를 지도한다. ③ 외국무역에 관해 계획을 작성하고 수행을 보장한다. ④ 외국과의 通商協定을 작성하고 그 수행과정을 지도한다. ⑤ 貿易分野에서 通貨·関税政策에 관한 문제들을 검토한다. ⑥ 輸出·輸入許可証을 교부한다. ⑦ 輸送·傭船·貨物取扱業務를 지도한다. ⑧ 関税業務 ⑨ 海外市場 및 諸外国의 경제 貿易政策에 관해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対外経済事業部

貿易促進을 위한 窓口役割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주로 未修交国에 대한 交易促進, 借款導入 및 支払延期에 관계되는 업무, 対外宣伝 및 홍보, 크레임処理, 国際博覧会参加, 외국의 経済·財界人物 초청, 対外経済支援, 외국상사의 特許授受 등 경제와 관련된 정치 선전적인 업무를 담당·수행한다.

다) 国際貿易促進委員会

이 위원회는 주로 未修交国民間商社에 대한 貿易契約締結, 販路開拓 및 확대 海外貿易情報 및 여론수집, 샘플 또는 商品

카다로그蒐集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韓国의 大韓貿易振興公社 (KOTRA)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라) 科学·技術協調委員会

외국과의 科学·技術協定締結, 과학, 기술관계인물 초청 및 외국방문, 해외과학·기술정보 및 書籍蒐集 등을 담당·수행하고 있다.

마) 貿易代表部

貿易部内의 海外駐在機構로서 주요무역 거래국에 설치되고 있으며 貿易代表部가 설치되지 않는 국가에는 貿易代理部를 두기도 한다.

무역대표부의 설치여부는 政務院閣僚会議에서 결정되며 이것은 상대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貿易代表部는 상대국과의 외교관계가 성립된 후에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나 修交以前에도 양국정부와의 특별한 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수도 있다.

바) 貿易商社

貿易実務를 담당하고 있는 貿易部傘下 기관으로서 対外貿易業務에 있어서는 法人格을 가진 독립경제기관으로서 商品의 수출입 전담은 물론 相談에서 계약체결까지 전과정을 관장하고 있다. 資本主義経済体制에서 말한다면 일종의 国営貿易公社이다.

北傀의 무역상사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名称에서 国営機関임을 명시한 輸出入商社, 예컨데 朝鮮設備輸出商社, 朝鮮機械輸入商社, 朝鮮金属製品輸出入商社, 朝鮮化学製品輸出入商社, 朝鮮出版物

輸出入商社 등이고, 다른 하나는 名称으로 보아서는 순수한 民営商社처럼 보이는 白金山貿易商社, 금수산貿易商社, 大聖, 大宝 등 무역상사로 이들은 주로 未修交国에 대한 民間베이스貿易을 전담한다.

사) 貿易事務所

마카오에 설치된 Chiao Kang Trading Co.와 Keum Gang Trading Co.등이 貿易事務所의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다.

홍콩에도 国営貿易公司를 설립하여 北傀商品을 판매하는 등 무역업무를 개시하려 한다는 것이다.

마카오에 있는 무역사무소에선 北韓의 民芸品, 乾海産物, 인삼, 술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西方世界로부터 대량의 器材, 工業製品을 구입하여 鉄道便을 이용, 中共経由로 北韓에 수송한다고 한다.

北傀의 이같은 구입은 마카오政庁의 貿易統計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한다. 마카오에서 製品을 中共쪽으로 수송하는 경우, 수송라이센스 내지 輸出届의 제출은 필요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 무역사무소는 다만 무역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情報活動, 政治工作의 근거지역할도 한다고 한다.

2. 資本·技術協力面에서의 推移와 現況

1) 期間別 資本·技術導入 推移

北傀의 자본 및 기술협력도입 추이는 北傀의 対蘇·対中共 관계변화 및 北傀의 외교정책의 展開過程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北傀의 資本·技術導入 推移를 살펴보기 위해 몇 단계의 시기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하겠다.

㉮ 1945 ~ 6·25까지의 시기, ㉯ 戰後復旧 3개년계획기 (1954 ~ 56년), ㉰ 제1차 5개년계획기(1957 ~ 60년), ㉱ 7개년계획기(1961 ~ 70년), ㉲ 6개년계획기(1971 ~ 76년), ㉳ 제2차 7개년계획기(1978 ~ 84년)

가) 1945년~6·25까지

1946년 3월17일 金日成이 訪蘇하여 소련과 長期經濟文化協定을 체결했다. 그리고 1949년 3월에 소련과 經濟·文化協定 및 借款協定 등을 체결하고 2억1,200만旧루불(5,300만달러)의 차관을 도입하여 경제건설에 힘을 기울였다.

나) 戰後復旧 3개년계획기(1954 ~ 56년)

1953년 9월1일~9월29일 사이 金日成이 소련을 방문하여 10旧억루불(2억5,000만달러)의 援助協定을 조인하였으며 총원조의 3분2는 1954년중에, 殘額은 無償으로 1955년중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949년 3월17일에 소련이 北傀에 제공하였던 5,300만달러 借款중 절반은 상환을 면제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償還을 연기해 주었다.[15]

소련은 이 원조말고도 技術者를 파견하여 직접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동시에 北韓의 幹部技術者 養成을 도왔다.

이 10億旧루불의 無償援助로 소련은 北韓에 ①金策製鉄所(1955~58년에 복구, 59년 拡張, 60만t 生産能力) ② 城津製鋼所(59년말 복구, 30만t 능력, 特殊鋼 생산), ③興南肥料工場(1955년 8월 복구, 70만t 生産能力) ④南浦製錬所 ⑤水豊発発電所(1958년 8월 복구, 設備容量 70만KW) ⑥ 勝湖里시멘트工場 ⑦ 馬洞시멘트工場 ⑧ 평양방직공장(1954년 4월 복구)등 復旧, 확장하는 동시에 絹織物工場, 肉類加工工場, 魚類통조림工場, 染色工場, 漂白工場, 트랙터修理工場 및 라디오放送局을 새로이 건설하는 것을 원조했다.[16]

한편 北傀와 중공사이에도 1953년 11월의 金日成 북경방문을 계기로 10개년의 長期経済 文化協定과 貿易 및 鉄道技術者 養成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相互協調가 강화되는 동시, 6·25동란 중 中共이 北傀에 제공한 일체의 物資援助와 資金援助는 無償으로 되었고, 이밖에 中共은 새로이 8億원의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이 협정에 의해 제공한 것은 戦後復旧에 필요한 물자였고 그 기간은 1954~57년의 4년간이었다. 이 기간에 中共은 石炭, 綿布, 食糧, 건축자재, 기관차, 客貨車 및 기타 운수자재, 金属製品, 기계, 器具, 漁船, 衣類, 紙類, 文房具 등의 生必品을 제공했고, 또 기술자(특히 건축기술자)와 労務者를 파견하여 기술상의 원조를 제공했다. 이 원조에 의해 中共은 大同江鉄橋와 철도(72Km)를 복구하고 벽돌工場, 에나멜工場 및 기계공장을 건설해 주었다.

이 기간에 北傀가 공산제국으로부터 받은 援助額은 5億5,885만달러로 推定되고 있다. 또 北韓은 1953년 下半期에 東独, 체코, 항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등 東欧諸国으로부터도 経済技術援助를 받았다. 北韓의 戦後復旧 및 経済建設은 共産圏諸国의 分担式援助로 추진되었다.

소련·中共 다음으로 많은 援助를 제공한 나라는 東独(약 1억 3,650 만달러)과 폴란드(약 9,100 만달러)이고 다음은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항가리 順으로 되어 있다.

이같이 공산권제국의 적극적 원조로 말미암아 北韓経済는 비교적 빨리 復旧되었다.

다) 제1차 5개년계획기(1957 ~ 60년)

이 기간중 北韓이 소련·中共·東欧諸国으로부터 받은 경제원조는 다음과 같다. 金日成은 5개년계획수행에 필요한 원조를 얻기 위하여 代表団을 이끌고 1956년 6월 1일부터 7월 19일에 이르기까지 近 50일간을 소련과 東欧諸国을 巡訪했다. 北韓은 그해 7월에 소련과 체결한 協定에 의해 3億旧루불(7,500 만달러)의 無償援助는 1億7,000 만旧루불(4,250 만달러)의 借款을 받게 되었으며 東欧諸国으로부터도 많은 원조를 받게 되었다.

이 기간중에 蘇聯援助와 의해 復旧, 확장 또는 신설된 공장은 다음과 같다.

金策製鉄所의 확장(59년), 城津製鋼所의 復旧(59년말), 水豊発電所의 復旧(58년 8월), 馬洞시멘트工場(59년 2월), 竜城肉類

加工工場, 吉州펄프工場(59 년)의 신설 등이 그것이다.

또 東独은 大小工場, 학교, 병원 등 90 여개소를 포함한 咸興市를 복구하고 디젤엔진工場, 綜合印刷工場 등을 새로이 세웠다.

北韓은 또 中共으로부터 1958 년 9 월에 체결한 援助協定에 의하여 2 억 1,000 만루불(5,250 만달러)의 借款을 받았다. 이 차관중 4,000 만旧루불(無利子)로 雲峰水力発電所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1 %의 利子가 붙은 1 억 7,000 만旧루불(4,250 만달러)로 2 개의 시멘트工場과 1 개의 紡織工場을 건설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北韓의 5 개년계획을 援助하기 위한 것이었다.[17]

이 기간에 北韓이 東欧諸国으로부터 받은 원조액은 약 4 억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소련·中共·東欧諸国은 모두 戦後復旧 3 개년계획기에 있어서처럼 적극적으로 원조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원조했다. 5 개년계획을 목표대로 달성 못한 것은 원조의 감소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라) 7 개년계획기 (1961 ~ 70 년)

이 기간중에 소련은 61 년 11 월 2 일에 北韓에 대해 그동안의 借款中 7 억 6,000 만旧루불(1 억 9,000 만달러)의 상환을 면제하고 1 억 4,000 만旧루불의 借款에 대해서는 1967 년을 起点으로 하여 10 年延払로 상환하도록 연기하여 주었다. 그리고 12 월 24 일에 소련은 北韓에 経済 技術協力協定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金策製鉄所의 확장공사원조 ②北倉火力発電所(60만KW)와 平壤火力発電所(40만KW)의 건설원조 ③年間 200만t의 原油를 처리할 수 있는 雄基原油加工工場 건설을 원조하고, 原油를 제공 ④映画製作所와 亜麻織物 및 毛織物生産工場의 건설원조였다.

그러나 이것은 소련의 無償援助나 長期借款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朝·蘇간에 체결된 1961 ~ 65년간의 商品 相互納入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代金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원조라고 할 수 없고 일종의 現物償還方式 또는 바타貿易이라 하겠다.

이 商品相互納入協定에 의하면 소련은 北韓에 대해 각종 設備와 기계류, 石油製品, 棉花, 黒色金属, 圧延鋼材, 合金鉄管類, 타이어, 化学製品 기타 상품을 납입하고 北韓은 소련에 대해 有色金属, 合金鋼, 工作機械, 마그네샤크링카, 시멘트, 葉煙草, 사과 기타 상품을 납입하기로 되어 있었다.[18]

소련이 이 協定대로 원조했더라면 北韓의 경제건설은 적어도 7개년계획의 実績보다는 훨씬 성과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7개년계획의 前半期(1961 ~65년)에 일어난 中蘇紛争은 소련의 対北韓経済協力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게 되었다. 1962년부터 北韓에의 경제원조와 技術援助를 중단하고 기술자를 철수시키고 말았다.

北韓은 1963년 10월 28일자 「로동신문」 社説 「社会主義를 擁護하자」에서 「소련이 経済援助를 정치적 干渉과 경제적 圧力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1964년 9월 7일字 「로동신문」 社説에서는 「왜 平壌経済討論会의 성과를 中傷하려고 하는가」의 題目으로 프라우파의 論評을 반박하면서 소련을 가리켜 「자립적 民族経済建設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을 편파적인 植民地 経済의 낡은 틀에 머물러 있게 하며 独立国家들의 자립적 발전과 번영의 길을 가로막는 것으로 된다. 프라우다가 援助의 模範으로 내세우고 있는 平壌紡織工場과 興南肥料工場의 일부 職場들의 복구건설에 준 원조에서 소련은 国際市場価格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설비와 鋼板을 비롯한 자재를 주고 그 대신 우리에게서 数 10 t의 金과 다량의 고귀한 非鉄金属과 원료를 国際市場価格보다 훨씬 헐한 값으로 가지고 갔다」고 소련援助의 본질을 공개비난했다.

이와는 달리 中共은 1960년 10월 13일에 체결한 借款協定에 의하여 北韓에 대해 1961 ～ 64년간에 4억 2,000만旧루불 (1억 500만달러)을 제공하여 ①타이어工場 無線通信機械工場, 日用必需品생산공장의 건설을 원조하고 ②綿紡織工場 등의 軽工業建設을 원조하는 동시에 無線通信設備와 綿紡織을 제공하였다.

악화되었던 北傀, 소련관계는 1965년 2월 코시킨 首相의 平壌訪問으로 好転되었으며, 66년 6월 北韓代表団 (단장 李周淵 부수상)의 소련방문으로 노비코프 副首相을 단장으로 한 소련대표단과 회담했다.

① 経済技術協力에 관한 協定

② '1967 ~ 70년간의 商品相互納入에 관한 協定

③ 漁業協力에 관한 協定締結을 했다.

이 經濟技術協定은 60년 12월에 체결된 협정의 내용을 再確認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漁業協力協定이 추가되고 암모니아 工場建設과 기타 공장건설이 추가되는 한편 金策製鉄所의 製鋼能力을 100만t 규모로 확장하기로 하였다 한다.

商品相互納入協定의 내용도 약간 変更되었는데, 소련은 北韓에 대해 기계, 설비, 연료, 原綿, 工業用原資材, 타이어, 化学製品 기타 消費財를 수출하고 북한으로부터 黑色金属, 圧延製品, 合金鋼材, 非金属鉱物, 建設資材, 化学고무製品 非鉄金属, 軽工業製品 및 기타 商品을 수입하기로 되었다.

66년 7월 모스크바放送은 이미 소련은 2,500명의 기술자를 北韓에 파견하였고 기계류, 電気機具의 対北傀輸出을 2배로 증가시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소련과의 관계가 긴밀해지자 中共과의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하였는데, 北傀는 68년 8月12日字 「로동신문」 社説에서 「自主性을 擁護하자」고 하여 自主路線을 선언하고 親中共路線에서 親蘇路線으로의 전환을 合理化시키고자 했다.

北傀는 1967년 2월 第1副首相 金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소련을 방문, 3월에 経済 및 科学, 技術協力協定과 1967년도 商品相互納入에 관한 協定을 체결하였는데 이 협정에 따라 鉄道, 炭鉱 電力部門에서의 건설을 원조했다.

北傀는 경제적 実利추구를 위해 対蘇接近策로로 전환, 7개년계획 수행에 필요한 원조를 소련으로부터 받으려고 노력하였고, 対中共闘争을 위해 소련도 北傀에 経援과 함께 軍援도 실시했다.

그러나 소련이 60년 12월의 協定과 66년 6월 協定에 의해 원조키로 한 것중 준공된 것은 平壌火力発電所분이고 기타 공장의 건설공사는 지연되었다. 60년대 後半에도 소련의 원조가 受援国의 입장으로선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었다.

마) 6개년계획기 (1971 ~ 61년)

이 기간중에 朝·蘇経済 技術援助協定 (1971 ~ 75년)이 체결되었다. 이 協定에 의해 소련은 20여개의 공장을 신설 또는 확장하는데 따른 설자와 用役을 北傀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金策製鉄所의 확장, 北倉火力発電所 (60만KW)의 건설, 石油加工工場 (年間 200만t의 原油処理能力保有)의 건설지원 등은 66년의 協定분만 아니라 이미 60년 12월의 협정에 의하여 약속돼 있었다. 새로 追加된 것은 雄基火力発電所와 蓄電池工場 정도이다.

이 협정에 있어서도 전과 같이 借款 또는 長期延払輸出 (소련의 対北傀)이 아니라 버타制나 短期延払에 의한 플랜트수출 또는 기계, 설비 및 用役의 수출이라 하겠다.

한편 北傀, 中共関係는 1969년 10월 中共政権樹立 20주년기념식에의 崔庸健 파견과 70년 4월5일의 周恩来 平壌訪問으로 호전되었다. 이에 따라 70년 9월13일엔 貿易代表団이 9월19일에는 경제대표단이, 10월14일엔 정부대표단이 중공을 방문하여 北

京，上海，南京의 각종 공장（특히 기계공장）을 視察하고 経済技術援助協定（1971 ～ 75년）을 체결하고 長期通商協定（1971 ～ 75년）도 체결했다.

이 협정에 의해 ①기계공업부문의 支援을 약속하고 ②코크스炭의 공급 등에 의한 製鉄部門의 지원 ③紡織，染色，비날론，라디오工場 등 軽工業部門의 지원을 약속하고 ④雲峰発電所（40만KW）의 건설 추진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70년 7월 25일 軍事代表団이 中共을 방문하여 軍事援助協定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정에 의해 軍需産業의 지원이 약속되었으리라 推測된다.

이 기간중 소련이 北傀에 제공한 財政的，技術的 지원을 표로 나타내면 <表12>가 된다.

<表12> 소련의 対北傀経済協力

（6개년계획기：1971 ～ 75년）

	援助内訳	実施事項
1	北倉火力発電所	拡張（100만KW）
2	原油加工工場（200만t）	71.4.15 제1단계 操業豫定
3	雄基火力発電所（100만KW）	71.4.15 操業豫定
4	自動車蓄電池工場	71.6. 設計図伝達 2～3内 操業豫定

	援助内訳	実施事項
5	金策製鉄所	71.7.14 圧延鋼材生産 50만t 設備製作중 71.6.13 電炉職場(鋼鉄年60만t) 新設 72.2.15 鋼鉄生産 100만t으로 拡張豫定
6	露天採炭場	建設
7	마이크로 모터 및 에나멜線製造工場	
8	原子力発電所 設備	提供計劃
9	71.2.16 鉄道車輛工場	74.4.29 計劃着手
10	電動機工場	
11	베아링 工場	
12	알루미늄工場	
13	펄프製紙工場	
14	茂山鉄鉱山	72.2.15 완성예정
15	디젤機関車工場	72.2.15

資料：北韓便覧，国土統一院，1974.

바) 제 2 차 7개년계획기 (1978 ~ 84년)

제 2 차 7 개년계획 (1978 ~ 84) 기간중 北傀는 「外国의 先進技術은 도입할 것이나 外資는 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는 1977년 4월 23일 日本為郷 読売新聞편집국장과의 회견에서 金日成이 언명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번 발언과는 반대로 이미 北倉火力発電所의 設備容量 160만KVA에 대한 拡張공사에 年利 2%의 크리디트가 소련으로부터 공여되기로 결정되었다. (모스크바放送 77년 2월 23일)

北傀의 수차에 걸친 経済計劃은 소련·중공 등의 援助에 크게 힘입어 왔으며 이번의 제 2 차 7개년계획 역시 例外일 수는 없다.

北傀는 77년 1월 24일 朴成哲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소련에 파견하여 쿠즈민 外国貿易省 제 1 次官과 桂応泰무역부장간에 「両国의 通商関係발전에 관한 諸問題를 토의」했다는 것이다.

「소련은 北韓에 7개년계획 기간의 80년도까지에 16개対象에 財政 및 기술원조를 할 것이다」라고 77년 3월 2일 모스크바放送이 선전한 바 있다. 16개対象이란 同放送에 따르면 茂山鉱山·北倉火力発電所·北倉알루미늄工場 등의 확장, 新設이다. 자동차공장, 디젤工場의 확장공사도 역시 포함되어 있는듯하다.

77년 3월 2일 및 3일의 모스크바放送에 의하여 밝혀진 経済援助의 구체적 내용은 〈表 13 〉과 같다.

그런데 모스크바放送의 이같은 宣伝에 대해 北傀는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 16개対象도 이미 6개년계획 때부터 移越된 것이 많고 또 蘇聯援助는 반드시 約束대로 履行되지 않았고 따라서 北傀는 이에 不満을 표시한 적도 있다.

〈表 13〉 소련의 対北援助約束内訳 (제 2 차 7 개년계획기)

対象 (蘇聯発表 名称)	対象 (北傀측呼称과所在地)	拡張時能力	増加分	備考
安州炭鉱	安州綜合炭鉱 (平南, 安州郡)	500 만 t /年	300 만 t /年	
盛興炭鉱	盛興炭鉱	150 만 t /年	50 만 t /年	
北倉火力発電所	北倉火力発電所 (平南, 北倉郡(	160 만 KVA	40 만 KVA	6 개년계획 (71 ~ 76 년) 기간중에 12 만 KVA 로 拡張하는 약속이 있었으나 현재 100 만 KVA 의 능력임.
清津火力発電所	清津火力発電所 (北, 清津市)	15 만 KVA	15 만 KVA	
62 t 全金属無蓋貨車製造工場	6 월 4 일 車両工場 (江原, 元山市)	8,000 輛	8,000 輛	77 년 10 월 完工예정
바테리工場	大同江蓄電池工場 (平南)	120만個/年	120만 個/年	77 년 10 월 完工예정
超小型모터工場	本宮電機工場 (咸南, 興南市)	100만個/年	100만 個/年	

対象(旧称発表 名称)	対象(北側呼称又は住所地)	拡張市能力	増加分	備考
베어링工場	10月30日工場(平北)	1,300万個/年	1,300万個/年	10月30日베어링工場이라고도함.
平壌電気機械工場				
雄基精油工場	勝利化学工場(咸北, 雄基市)	200万t/年処理	100万t/年処理	
암모니아工場	(咸南, 興市)	5万t/年	5万t/年	清津市에로 建設地変更可能性
金策紀念製鉄所	金策製鉄聯合企業所(咸北, 清津市)	100万t/年	50万t/年	
알루미늄製錬工場	(平南, 北倉郡)	2万t/年	2万t/年	7개년계획기간(1978~84년)중에 건설예정이었음.
平壌停車場	西浦築中貨物駅			
羅津港				
雄基火力発電所	(咸北, 雄基郡)			
自動車工場	勝利自動車工場(平南, 徳川郡)			「建設」号(25t級)의 技術援助
디젤엔진工場				

資料：北朝鮮研究，日本国際関係共同研究所，1977.8월호(No.38) PP40～41

소련의 援助는 정책적으로 誇大宣伝되거도하여 약속이행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勝利化学工場은 67년까지 原油100만t 処理能力의 시설을 갖게 약속했으나 실제로 완성된 것은 6개년계획기(1971~76년)에 들어와서이다.

全浪製鉄所의 100만t능력의 圧延鋼板工場(熱間圧延分工場)은 지금까지 완성되지 않고 있다. 2만t능력의 알루미늄製錬工場(北倉알루미늄工場)은 67年까지 完成시킬 예정이었으나 제2차 7개년계획의 対象이 되고말았다.

따라서 이번 발표된 프로젝트援助도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완성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제1차7개년계획(1961~70년) 기간중에 있었던 것처럼 소련의 원조는 北傀의 対蘇接近政策이 지속되는 동안만 공여될 것이다.

北傀의 경제협력総額은 8.15부터 1970년말까지 20億4,304만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71년이후부터 (75년도 제외)의 도입액은 36億7,664만달러(75년 제외)인 것으로 推計되었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8.15~6.25前까지의 協力導入額이 5,300만달러, 1950~1960년까지, 즉 1950년 6.25~53년말까지의 戦争기간부터 1954~1956년까지의 戦後復旧 3개년계획기간 1957~1960년까지의 제1차5개년 계획기간까지의 総導入額이 16억5,336만달러(이 중 無償援助가 12억7,844만달러, 借款이 3억7,492만달러)이고 1971~1976년까지의 6개년계획기간

(75년제외) 에는 16억 3,360만달러를 도입한 것으로 추계 되고 있다.

2) 国別 資本·技術導入推移

北傀가 8.15이후부터 1976년까지 도입한 経済協力総額은 36억 7,272만달러인데 이를 圏域別로 보면 共産圏으로부터의 도입액이 73%인 26억 7,372만달러이고, 西方世界로부터의 도입액은 27%인 9억 9,900만달러이다.

이를 国別로 보면 蘇聯으로부터의 도입액이 가장 많아 1976년 (75년제외) 까지의 도입액은 전체도입액의 43.4%인 15억 9,593만달러 (이중 無償援助가 5억 1,475만달러, 借款도입이 10억 8,118만달러이다.

中共으로부터의 도입액은 전체도입액의 16.7%인 6억 1,510만달러, 東独은 3.7%인 1억 3,635만달러, 폴란드는 2.5%인 9,100만달러, 루마니아는 0.6%인 2,250만달러 불가리아는 0.3%인 1,250만달러, 헝가리는 0.1%인 392만달러로 추계되고 있다.

資本主義圏으로부터의 도입액은 전체도입액의 27.2%인 9억 9,900만달러 (75년제외) 인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国別導入額에 대해서는 자료의 제약성 때문에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

国別導入額을 時期別로 보면 소련으로부터는 1949년이전에 5,300만달러의 借款을 도입했고, 1950~60년간에는 無償援助로 5억 1,475만달러, 借款으로 1억 9,850만달러, 1961~70년에는 借款으로 1억 9,668만달러, 1971년에는 2억 5,000만달러 (借款), 1974년에

1억 2,000 만달러, 1976 년에는 400 만달러 (借款) 를 도입했다.

中共으로부터는 1950～60 사이에 無償援助로 3억 3,600 만달러, 借款으로 1억 7,250 만달러, 1961～70 년 사이에 借款으로 1억 500 만달러, 1976 년에 借款으로 160 만달러를 도입했다.

東独으로부터는 1950～60 년 사이에 無償으로 1억 135 만달러, 1961～70 년 사이에 借款으로 3,500 만달러를 도입했다. 기타 체코·루마니아·불가리아·폴란드·헝가리로부터는 1950～60 년 사이에 無償援助로 각기 2억 34 만달러, 2,250 만달러, 1,250 만달러, 9,100 만달러를 도입했고 헝가리로부터는 借款으로 392 만달러를 도입했다.

다음으로 資本主義国으로부터는 1970 년 이후부터 経済協力을 제공받아왔는데, 그 규모가 9억 9,900 만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年度別로는 1970 년에 300 만달러, 1971 년에 1,700 만달러, 1972 년에 2억 400 만달러, 1973 년에 3억 7,5000 만달러, 1974 년에 4억 달러였다.

3) 部門別 資本·技術導入推移

① 金属工業部門

소련을 비롯, 中共, 체코, 폴란드 등으로부터의 財政, 技術도입으로 건설, 復旧, 拡張된 공장으로는 金策製鉄所, 清津製鋼所, 南浦製鉄所, 亜鉛製錬工場, 鉄鉄工場등이 있다.

② 電力工業部門

이 部門에서 소련, 中共, 체코로부터의 経済協力으로 신설,

復旧，확장된 発電所는 平壌火力発電所，水豊水力発電所，赴戦江発電所，虚川江水力発電所，禿魯江発電所，雄基火力発電所，清津火力発電所，原子力発電所등이 있다。

그리고 70年代에 西独으로부터 火力発電設備와 오스트리로부터 水力発電設備를 도입했다。

平壌火力発電所，北倉火力発電所，電子力発電所는 소련 援助로 7개년계획기에 건설했고，雄基精油工場（勝利化学工場）을 뒷바침하기 위한 雄基火力発電所와 清津工業地区의 動力源補強을 위한 清津火力発電所는 소련의 원조로 6개년계획기에 건설했다。

③ 機械工業部門

소련，中共，헝가리，東独，체코 등으로부터의 원조로 완공되거나 設備支援받은 공장은 竜域機械工場，熙川工作機械工場，亀域工作機械공장，重型機械工場，平壌精密機械工場，北中機械工場，雲山工具工場，平壌紡織機械공장，亀城鉱山機械工場，베아링工場，木材用機器製造工場등이 있다。

1970년대이후 日本，이탈리아，프랑스，스웨덴으로부터 旋盤設備，볼트너트플랜트，鉱山設備 및 技術을 도입했다。

그리고 精密機械部門，油圧装置 등을 생산하는 정밀기계공업분야는 소련，東独 諸国에서 기술과 装置를 도입하고 특히 정밀기계를 加工하는 母機械는 대부분 외국에서 도입했다。 또 스웨덴으로부터는 多量의 鉱山装備와 기술을 도입했는데 스웨덴은 1975년 平壌에서 鉱山機械展示会를 가진 바 있다。

④ 化学工業部門

소련, 헝가리, 폴란드의 援助로 復旧, 확장, 신설한 공장은 興南肥料工場, 塩酸工場, 平壤染色工場, 漂白工場, 암모니아塩化비닐工場 암모니아工場, 阿吾地化学工場, 벤졸工場, 本宮染料工場, 硫黄工場, 탄약 공장 등이다.

그리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日本, 西独, 日本(合作)에서 石油化学設備, 암모니아 尿素肥料設備, 그루타민酸製造플랜트, PVC 설비등을 도입했다.

⑤ 運輸機械製造工業部門

소련, 中共,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등의 원조로 復旧, 拡張, 建設된 공장은 平壤電気機関車工場, 德川自動車공장, 沙里院트랙터工場, 71.2.6鉄道車輌工場, 清津造船所, 竜岩浦造船所, 清津鉄道工場 및 디젤機関車공장 등이다.

平南江西郡에 있는 德川自動車工場은 自動車工業의 母体인데 체코의 원조로 건설되었다.

⑥ 電気機器工業部門

소련, 中共, 체코, 헝가리, 폴란드의 원조로 건설된 공장은 平壤電気機械工場, 大安電機工場, 平壤電線工場, 平壤電気工場, 에나멜線製造工場, 無線通信機械工場, 電動機工場 등이다.

強電部門에선 共産圏으로부터의 원조에 크게 의존했으나 弱電部門생산을 위해선 1970년대에 日本, 英国에서 플랜트를 도입하였다.

⑦ 建材工業部門

소련, 루마니아, 체코, 불가리아 등에서의 원조로 복구, 설립된 공장은, 시멘트工場으로서는 勝湖里시멘트工場, 2.8馬洞시멘트工場, 順川시멘트工場, 川内里시멘트공장이 있다. 그리고 日本과 덴마크에서 도입한 시멘트工場 등이 있다.

그리고 소련援助로 완공된 平壤콘크리트블럭工場, 불가리아援助로 완공된 煉瓦工場, 소련과 헝가리援助로 건설된 平壤木材加工工場, 소련援助로 완공된 吉州合板공장, 日本에서 도입한 耐火벽돌공장 등이 있다.

⑧ 펄프 및 製紙工業부문

소련, 中共의 원조로 건설한 工場으로 吉州펄프工場, 펄프製紙工場, 惠山製紙工場, 시멘트크라프트紙工場 2개가 있다.

1970년대에 덴마크에서 製紙設備를 도입한 바 있다.

⑨ 繊維工業部門

소련, 中共, 日本에 있는 朝総聯의 원조에 의해 확장, 건설된 공장은 平壤紡織工場, 平壤綜合紡織工場, 興南毛織工場, 惠山亜麻物工場, 愛国編織工場, 松林愛国編織物공장 등이 있다.

日本으로부터도 化学繊維플랜트를 도입 하였다.

⑩ 製薬工業부문

루마니아로부터 주로 원조를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順川製薬工場, 羅南製薬工場 및 医療機具工場이다.

⑪ 食品工業部門

소련 불란드 등의 원조로 건설된 工場은 竜城肉類綜合工場,

魚類통조림工場, 茶菓工場, 레몬酸工場, 酒精工場 등이다.

이외도 鉱山부문과 기타 여러 부문에서 원조를 받아들였다.

三. 北韓의 對南經濟協力 가능성

1. 南北韓간 経済協力의 필요성

北韓은 공산권은 물론 제3세계와 나아가 西方諸国과 経済協力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南韓과의 経済交流, 経済協力관계는 기피,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祖国統一5大綱領」의 제2項에서 「多方面的인 合作과 交流」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을 어디까지나 対南宣伝攻勢의 일환으로 이용하고 있는 印象이 짙다.

南北韓간의 経済交流는 경제적인 相互 補完이라고 하는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相互理解를 돕고 不信과 적대감을 해소함으로써 정치적, 軍事的인 次元에서 남북간긴장을 완화시키고 安定과 平和를 定着시키며 나아가 統一에의 条件을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한다는 것은 말할나위도 없다.

여기서는 南北간의 交易 및 技術協力, 資本協力이 가져올 결과에 국한시켜 살펴보고자한다.

8.15解放당시 韓半島는 日帝의 植民地政策과 韓国의 地理, 自然環境등의 요인으로 「南農北工」的인 성격이 뚜렷했다. 동시에 「北의 重工業, 南의 経工業」이라는 地域分業的 性格이 짙었던 것이다.

이같은 경향은 1960년대까지 계속되었고 따라서 南北韓의 経済

交流는 高度로 補完的, 相互扶助的 의의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60년대後半부터 韓国経済는 軽工業에서 重化学工業의 初期段階로 들어서기 시작, 70년대에 와서는 資源財工業과 消費財工業의 비율이 1 : 3.2로서 이른바 工業化의 제2단계에 들어서게된 것이다. 이에 따라 交易의 高度한 補完性은 다소 감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南北間의 経済交流, 技術 및 資本協力은 상당한 플러스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① 軽工業製品의 交易가능성

北韓은 지금도 衣類, 生必品 등 軽工業製品이 不足한 형편이고, 南韓은 국내 需要를 초과하는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 先進輸入国의 輸入規制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軽工業製品을 북한과 交易할 수 있을 것이다.

② 鉄鉱石 등의 原資材供給가능성

重化学工業건설에 따라 南韓은 자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北韓은 鉄鉱石 등에 상당한 수출능력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原資材공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③ 南北간의 重化学工業의 分業가능성

남북쌍방이 최신기술을 갖춘 国際単位의 重化学工業플랜트를 골고루 구비하자면 ㉮ 建設敷地의 不足 ㉯ 資本의 不足 ㉰ 高度의 기술 및 技能을 갖는 人力의 不足 ㉱ 市場의 狭小, 不足상태에 직면하게된다.

그러나 만일 지속적인 南北交流가 이루어지면 ㉮ 南北韓의 重化学工業의 分業을 가능케하고 ㉯ 資本不足을 解消하고 重複投資에서 오는 資本浪費를 막으며 ㉰ 補完的 건설로서 立地 및 人員의 不足을 해소하고 ㉱ 相互市場開放으로 広域市場이 주는 利益을 누리게 될 것이다

2. 南北韓간 交易의 事例와 経過

이같은 필요성과 큰 의의를 갖는 南北経済協力은 앞으로 실현되어야할 것이지만 과거에도 그런 事例가 이미 있었다.

南北韓간의 交易과 物資交流는 8.15후 美軍政下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分断初期에 物物交換形式으로 非公式裡에 물자의 교환을 했으며, 北韓의 電力使用에 대한 代価로 일부物資를 제공했던 일이 있다.

北傀는 1954년 제네바会議때부터 南北間의 経済, 文化交流를 수시 제의해 왔으나 이는 戦略的인 宣伝攻勢의 一環에 불과했다 하겠다.

1973년 6월23일의 「6.23宣言」을 계기로 韓国政府는 対共産圏門戸開放政策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北韓에 대해 経済交流와 食糧援助제의를 한 일이 있다.

더우기 1973년 南北調節委제2차会議에서 南北韓経済人의 相互交流와 商社의 相互常設 등 多方面의 経済交流문제를 제의한 일인

있다. 또 朴大統領에 의한 南北間経済協力促進제의가 社絶状態에 빠진 南北対話에 突破口를 열기 위해 행해지기도 했다.

3. 交易商品의 選定問題

① 輸出可能商品

韓国의 対北韓수출가능 商品選定을 위해 1974년을 기준으로 韓国의 対OECD(経済協力開発기구 先進 24개국加入)수출실적과 北韓의 対OECD諸国 및 経協수입실적을 対比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1974년도 北韓의 수입을 SITC(国際商品分類) 3 digit (3単位) 기준 50만달러이상의 상품을 선정하여 韓国과 北韓과의 補完関係에 있는 韓国의 対北韓輸出商品(수출가능상품)은 60개品目에 달한다. 이를 SITC大分類에 의해 集計해보면 非食用原材料에서 4개品目, 鉱物性燃料 및 潤滑油에서 2개品目, 化学品에서 8개品目 原料別제품에서 23개品目, 機械類 및 運搬用機器類에서 15개品目 新製品에서 8개品目으로되어 있으며, 商品類別 우선 순위는 原料別製品, 機械類 및 運搬用機器類, 雑製品 및 化学品, 非食用原材料의 순위로 되어 있다.

② 輸入可能商品

韓国의 対北韓輸入可能商品은 32개品目에 이르며, 이를 SITC大分類에 의해 集計해보면 食料品 및 산動物에서 5개品目,

飮料 및 煙草에서 2개品目, 非食用原材料에서 5개品目, 鉱物性燃料 및 潤滑油에서 1개品目, 化学品에서 3개品目, 原料別製品에서 12개品目, 機械類 및 運搬用機器類에서 3개品目, 維製品에서 1개品目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商品類別우선순위는 原料別製品, 食料品製品 및 산動物, 非食用原材料, 機械類 및 運搬機器類, 化学品, 飮料 및 煙草의 순위로 되어 있다.

③ 輸出可能商品名

対北韓輸出可能商品名을 구체적으로 열거 하면 다음과 같다. 羊毛, 石油製品, 有機化学品, 医薬品, 고무製品, 종이, 製紙用펄프, 織系, 繊維製品, 鉱鉄, 鉄鋼板, 金属製品, 事務用機器, 繊維機械 및 皮革機械, 機械類 및 部品, 電気機器, 신발類, 시계, 기타의 人造프라스틱製品 등이다.

④ 輸入可能商品名

対北韓輸入可能商品은 다음과 같다 하겠다.

魚介類, 果実, 알콜飮料, 煙草, 絹, 粗鉱物, 鉄鉱石, 非鉄金属屑, 石炭, 코우쿠스, 煙炭, 香料, 石炭, 粘土製건축재료, 鉄鋼塊 및 기타 一次製品, 銀, 白金, 구리, 亜鉛, 金属加工기계, 衣類등이다.

그런데 같은 分断国이면서도 東西独의 경우는 非政治的 分野에서의 経済交流가 先行되었는데 反해 南北韓의 경우는 北韓가 経済的 측면에서의 교류가 아닌 政治協商부터 시도하려드는 점에 両者간의 차이가 있으며, 南北韓간의 経済協力의 展望은 어둡다 하겠다.

四. 對外經濟政策의 問題点과 展望

1. 問題点

北韓의 対外経済政策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累積된 対外負債와 対外債務遅延문제라 하겠다.

北傀는 해방이후 1976년말까지의 기간에 1962～64, 1966～67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貿易収支의 赤字를 기록했으며 만성적인 貿易収支의 赤字現象을 지속했다.

정확한 貿易収支를 파악하기 어려운 1946년과 1954년을 제외한 24년간 북괴의 対外貿易額은 148억 9,040만달러였는데, 이중 무역수지적자액이 15.8%인 23억 5,690만달러였고 黒字額이 0.18%인 2,680만달러였다.

年度別로는 무역규모에 대한 赤字비중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59년도로 貿易総額 3억 4,800만달러에 대해 赤字額이 1억 2,200만달러였으며 무역수지赤字額絶対額이 컸던 해는 1974년도로서 무역수지적자액이 6억 2,500만달러였다.

그런데 60년대까지는 1946년과 1959년을 제외하고는 무역액에 대한 赤字額비중이 10%안팎이었는데 비해 70년대에 들어와서는 20～30%로 赤字幅비중이 늘어났다.

이같은 貿易赤字幅을 共産圏과 資本主義圏으로 나누어보면, 共産圏과의 무역에서는 1960년이후 1970년까지는 北傀측이 黒字를

유지했으나 71년부터는 계속 赤字였다.

国別로 보면 체코와 폴란드와의 무역에서 黒字를 나타내고 있을 뿐 기타 국가들과의 무역에서는 전부 赤字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蘇聯의 赤字幅이 가장 크다.

北傀의 対資本主義圏무역수지를 보면 60년이후 1976년말까지 1964년, 1967년, 1968년, 1970년, 1971년을 제외한 全年度에 걸쳐 赤定를 나타냈는데, 특히 1974년의 경우는 赤字幅이 対資本主義圏무역의 48%인 5억1,000만 달러나 되었다.

이를 国別로 보면 和蘭, 홍콩과의 무역수지는 계속 黒字를 지속했으나 나머지 국가와의 무역에서는 年度에 따라 間歇的으로 黒字를 기록한 해도 있으나 대체로 赤字現象을 나타냈고 특히 対日貿易에서 가장 큰 赤字를 기록하였다.

이같이 최근 몇해 사이 貿易収支의 対幅的인 赤字累積으로 北傀는 막대한 負債를 지게되었다.

北傀가 지고 있는 対外負債의 규모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数値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債権国들의 散発的인 발표에 의지하여 推定할 따름이다. 外債는 借款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체로 延払輸入分이다.

북한의 현재負債額을 25억달러 정도로 보고 対蘇負債 9억달러, 対中共負債 1억달러, 対資本主義圏 15억달러로 추정하기도 한다.

比頴의 西方소식통들은 1978년中半期현재 유럽 5개국과 日本에 대한 延滞負債만도 약7억8천만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国別로 보면 日本 2억5,000만달러, 西独 1억 9,5000만달러, 프랑스 1억 3,800만달러, 스웨덴 최소한 1억 3,600만달러 스위스 3,500만달러未満, 핀란드 2,500만달러 이다.

이같은 対外負債累積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하겠다.

① 6개년계획달성을 위해 共産圏, 자본주의국가 할 것 없이 무리하게 輸入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共産圏으로부터는 70년~76년말까지 33억 6,656만 3,000만달러의 플랜트를 중심한 각종 品目을 수입했는데, 소련으로부터는 製鉄設備, 石油精製설비를 도입했다.

자본주의권으로부터는 프랑스에서 3억 5,000만 프랑相当의 石油化学플랜式導入을 71년 12월에 계약했고, 스웨덴으로부터는 鉱山開発플랜트를 日本으로부터는 年産300만 t규모의 시멘트 플랜트를 수입하는 등, 23억 3,394만 8,000달러의 상품을 수입했다.

② 共産圏의 交易経済의 중심인 바터貿易을 하던 것처럼 충분한 外貨準備 없이 西方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시킨 점이다.

③ 1972년까지 70%이상을 공산권과 무역을 했기에 西方국가와의 交易経験이 적었고 게다가 西方先進諸国과의 貿易拡大를 추진한 1973년이 石油波動과 세계적 不況, 스태그플레이션 등과 一致하여 수출팽창이 어려워진 반면, 輸入原資材의 코스트가 上昇하였던 것이다.

④ 輸出의 大宗을 차지하고 있는 亜鉛, 鉛 등 非鉄金属과 鉄鉱石의 수출이 1974년이후 先進工業国家들의 景気沈滞와 非鉄金属의

国際価格下落에 의해 不振했다.

⑤ 貿易의 拡大에 따른 鉄道, 船舶 등의 輸送能力과 港湾設備의 拡充이 뒤따르지 못해 輸出品의 船積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外資収入不振의 원인의 하나로 되었다.

金日成이 日本 宇都宮議員과의 회담에서 「1974년에는 大国들이 船舶을 独占하였기에 傭船할 수 없어서 쌀, 시멘트, 鋼材, 마그네슘, 등이 滞貨되어 対인도네시아 쌀 20만t도 船積하지 못하였다」고 술회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⑥ 1972~74년 사이에 小麦과 小麦粉 등의 穀物수입이 年間 1억달러 정도로 급증했던 사실이다.

⑦ 拡大生産이 없는 軍需産業의 육성을 우선으로 하였기에 資源이 이 拡大再生産이 불가능한 부문에 들어졌기 때문이다.

⑧ 外資保有高가 적었던 탓인데, 北韓은 1974년말에 3억~5억 달러의 外貨를 보유하고 있었다. 外債償還의 주요수단인 金, 銀의 보유고는 1974년말 金이 5,674만달러, 銀이 6,314만달러 정도였다.

北傀가 1974년 10월경부터 貿易代金支払을 지연시키게되자 債権国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北傀와 支払延期 및 利子 등에 관해 交渉을 벌이게되었다.

負債償還交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러하다.

① 日本~北傀의 対日支払遅延은 1974년 후반부터 시작하였고, 75년 7월에 宇都宮議員이 北韓을 방문 金日成과의 회견시에 이

문제가 제기되어 金日成은 債務의 支払을 약속했다.

1976년 12월 13일 北韓을 방문한 日本의 交涉代表団은 支払期限이 지난 7,000만달러를 포함, 이미 船積한 3억달러와 未船積分 1억달러 등 약 4억달러에 이르는 북괴의 対日貿易延滯에 대한 延期対象, 延期기간동안의 利子 등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金利 및 支払保証面에서 타결을 못보았다.

당초 日本側은 1975년도 決済分短期債務는 1976년에, 1976년도분은 1977년에 支払하기로하는 대신 78년까지의 長期債務에 대해서는 2년간을 延期해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北韓측은 延払, 後払, 短期決済 및 제3국去来分일체를 대상으로 74~78년決済分에 대해 2년을, 75년도분은 2年半을 延期해줄 것을 요구했다.

1976년 12월 27일에 日本側이 金利를 引下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으로써 両側間의 合議書가 조인되었는데 合意내용은 支払延期 延滯利子 年7.5~8%분이고 구체적인 支払計劃은 확약받지 못했다.

「支払保証은 못하나 公約은 한다.」는 線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1979년 6월 9일 日本 共同通信의 보도에 따르면 日本의 43개 対北傀債権会社중 北傀의 債務不履行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3개 회사가 通産省에 輸出保険金지급을 신청, 1978年末에 1억엔을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의 輸出保険은 무역相対国의 代金支払능력이 없어졌을 때,

輸出業者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管理運営하는 保険으로 이 보험료의 지급은 무역상대국에 대한 사실상의 破産宣告와 経済断交를 의미하는 것이다.

日本의 43개 対北債権会社로 구성된 「日·朝決済問題協議会」는 일본을 방문하는 北側대표단을 맞아 日貨800億엔(약4억달러 중 元利金償還기간이 지난 것이 日貨로 240억엔)에 이르는 北側의 対日負債償還問題를 해결 지으려하고 있으며, 협상이 결연될 경우, 정부에 輸出保険을 신청하려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北側와 日本商社간의 貿易去来가 중단될 위기에 処해 있었던 것이다.

北側는 이같이 対日負債清算問題에 강경한 자세를 보인 日本業界의 태도 때문에 금년 7월 13일 「朝鮮貿易銀行」総裁 方基永을 일본에 파견 관계업체의 모임인 「日·朝貿易決済問題協議会」와 채무문제를 협우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이를 보류하였다.

그 대신 7월초 国際貿易促進委員会대표단을 우선 파견, 정체상태에 있는 対日貿易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도되었다.

즉 「北側 国際貿易促進委員会서기장 朴世讃을 단장으로하고 金属, 鉱物商社 등의 副社長級 5명을 단원으로하는 이 대표단은 日本商社에 대해 日本측의 対北輸入拡大가 北側의 対日負債를 해결할 수 있는 신속한 方案임을 설득시키고 북한의 無煙炭, 亜鉛, 水産物을 日本商社가 수입할 것을 요청할 것 같다[19]」는 보도가 있었다.

7월13일 제1차회담에서 北側측은 74年의 오일 쇼크로 北韓의 경제건설계획이 타격을 입어 対日貿易代金支払이 중단되었다고 지적,

현재 추진중인 제2차 7개년계획의 推移를 고려하여 支払時限을 좀 더 延長해줄 것을 日本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日本측債権者들은 ① 日·朝合意書대로 지불할 것 ② 合意書내용을 변경해야한다면 구체적인 支払方法을 제시해야 한다. ③ 支払遅延에 따르는 새로운 金利도 北韓이 支払義務를 갖는다 등의 3개項의 요구조건을 제시, 이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輸出保険申請도 不辞하겠다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20] 한다.

그러나 協商이 여의치 않아 日本의 対北傀債権団은 8월 7일 880억엔(3억 9천 5백만달러)에 달하는 北傀의 対日무역負債償還에 관한 北傀대표단과의 협상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21]는 보도가 있었으나 다시 부채상환을 또한차례 유예시킬 것을 보장한 최종案을 제시했는데, 내용은 北傀가 금년에 発生한 未償還부채에 대한 利子를 금년안에 지불하고 利子를 제외한 未償還負債는 내년부터 4년씩 간격을 두어 分割償還토록 되어 있다. 日本債権団은 또 1개월 내지 2개월후에 이 제안에 대한 회답을 보내달라고 北傀대표단에 요구했다.[22]는 것이다.

② 西独~1975년 西独의 헬메즈社가 輸出保険의 引受 停止조치를 취함으로써 北傀의 負債不履行문제가 본격화했다.

西独은 北傀로부터 받은 貿易代金의 未払額은 4,160만달러(1억 마르크)인데 北傀는 이것을 3년~5년延長을 西独의 金融機関과 去来企業에 대해 요청한 바 있으나 타결을 보지 못해 1977년에 非常用保有金 3.4t을 매각하여 142만달러를 상환한 바 있다.

③ 프랑스~北傀가 프랑스에 支払할 償還額은 1976년 2월末현재 2,550만달러 였다한다. 1976년 1월, 프랑스政府는 財務部対外経済局長을 平壌에 파견, 小麦, 無線誘導装置, 디젤엔진, 工作機械, 콤퓨터의 輸出代金의 지불을 촉구했다.

프랑스銀行과의 合意를 본 延期기간이 76년 3월에 끝나 再延期交涉을 벌였으나 타결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④ 스웨덴~스웨덴에 대한 北傀의 무역代金支払遅延은 스웨덴의 対北韓交易中断 사태로 번졌으나, 1976년 1월 스웨덴~北傀間의 協定에 따라 北傀의 対스웨덴貿易額 4,000만달러의 長期借款의 償還期日은 2년간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6년 4~6월 사이에 스웨덴商社들에 상환하기로된 短期負債 약 1,200만달러 중에서 430만달러는 支払하고 나머지는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한다.

필요한 先進資本主義국가로부터의 借款導入은 債務償還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기에 거의 不可能에 가깝다. 최근엔 債務가 전혀 없는 美国과의 관계改善을 바라고 있는 급한 실정이다.

2. 展 望

対外経済協力導入이 北韓経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큰 바가 있다. 이는 北韓経済의 発展過程에서 対外経済協力導入에 의한 波及効果가 北傀의 経済成長을 가능케한 原動力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1961~70년 사이의 7개년계획기간까지는 対蘇·対中共관계와

北傀의 資本·技術導入과는 밀접한 函数관계에 있었고 따라서 経済計劃目標의 달성여부가 결정 되다시피 했던 것이다.

또 6개년계획 (1971～76) 기간중에는 資本主義圈에로 対外経済協力導入先을 전환하여 無理한 수입을 감행하였기에 貿易収支의 赤字를 누적시켜 経済的 破綻 사태까지 몰고왔던 사실이 이를 입증해준다하겠다.

金日成은 1977년 4월 1일 日本 読売新聞編集局長과의 회견에서 제 2차 7개년계획에서는 「일부의 先進技術을 도입하겠지만 外資의 도입은 하지 않겠다」고 언명했으나, 이는 6개년계획기간중에 저지른 無計劃的인 과도한 外資導入으로 빚어진 사태에 대한 反省에서 나온 말에 불과할 것이은 진심으로 外資도입을 않겠다는 뜻으로한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北韓経済에 있어서의 経済計劃과 外資導入과의 構造的인 相関관계는 1978년부터 시작된 제 2차 7개년계획에서도 지속될 것임은 展望하기 어렵지 않다하겠다.

물론 革命과 経済建設에 있어서의 自力更生을 제 1義的으로, 対外経済協力導入을 제 2義的으로 삼는 기본입장은 포기치 않을 것이나, 앞으로의 経済計劃의 성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제 2義的인 것에 더욱더 力点이 주어질 것은 짐작할 수 있다.

다만 対外貿易에 있어서 제 1次的인 대상으로 삼아온 共産圈市場과 「副次的 意義를 지닌 資本主義제국과의 交易」중 어느 쪽에 더 注力할지는 속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資本主義제국과의 経済協力導入문제는 北傀의 対西方負債누적과 債務不履行으로 신용을 으뜸으로 여기는 資本主義圈으로부터의 지속적인 資本, 技術導入은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다.

그러나 北傀는 그들과의 経済協力을 기피, 경계하는 先進資本主義圈에 대해서 계속 協商과 接近을 시도할 것이며 심지어 美国에 대해서도 非政治的인 交流, 文化, 스포츠交流와 함께 経済協力관계도 단계적으로 摸索할 조짐마저 있는 것이다.

다음 제3世界에 대한 経済協力을 적극화할 것이다. 그것은 금년 9월초에 개최되는 제6차非同盟国頂上会議에 대한 対策수립을 위해 개최된 7월의 党中央委政治委員会와 中央人民委員会聯合会議에서 非同盟, 発展途上国間의 経済, 기술적協調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北傀의 経済研究所소장이며 経済学者인 홍공산이 최근 로이터通信設者와의 인터뷰에서 対外貿易이 経済개발에 중요하며 北韓이 가까운 장래에 対外貿易을 확대하는데 東南亜에 기대한 것임을 시사했다[23]는 보도도 이를 뒷바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 共産国과의 経済協力에도 힘을 기울이게될 것이라는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그것은 1977년 2월23일 모스크바放送이 北韓의 北倉火力発電所의 設備容量을 160万KVA를 증대시키는 拡張工事를 위해 年利 2% 조건으로 借款을 공여키로 했다고 발표한 사실과 또 朝鮮通信(日本에서 발행하는 朝総聯통신) 1977년 3월15日字에 의하면

제 2차 7 개년계획입안을 위하여 1976년初부터 北傀는 中共에 접근 1977년 3월 12일에 1977～81년간의 주요商品相互交流協定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뿐더러 北傀는 기계, 電気, 電子, 通信등 그들의 落後産業부문기술 개발에 크게부심, 소련 등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실은 기계공업, 電気, 通信 및 電子工業 등 일단의 산업사절단이 최근 일련의 기술회의에 참석중인 것으로 北傀放送들이 지난 13일 보도함으로써 밝혀지고 있다.[24]

또 금년 6월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코메콘会議에 업저버를 참석시키기도 했다.[25]

어쨌든 北傀는 올해들어 対外貿易増大에 注力하고 있는데 可히 「全方位貿易」이라해도 좋을듯하다.

金日成이 작년말 主宰한 党中央委제 5기계 17차全員会議 및 금년 新年辞에서 79년도 주요力点事業으로 강조한 採取, 輸送, 농업 및 軽, 重工業과 対外貿易강화活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올해 들어 例年에 없이 対外貿易강화에 노력, 最近上半期까지의 経済動向중 이 분야의 활동이 가장 현저하다는 것이다.

5月下旬현재 東独, 이집트 등 5개국에 貿易使節団을 파견하는 한편, 쿠바, 이집트, 요르단, 東独, 헝가리, 유고 등 12개국과 貿易商品 및 科学技術協定등을 체결했다[26]고 한다.

이 밖에도 5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개최된 유엔貿易開発会議

(UNCTAD) 에 대표를 파견했고, 또 유엔開発計劃 (UNDP) 집행위원회로부터 7월 8일, 총 8백 85만달러에 이르는 対北傀技術協力計劃을 승인받기도했다.

UNDP집행위원회는 브래드포드 모스 UNDP처장으로 하여금 北韓에 대한 UNDP援助基金으로 79년中半부터 오는 81년까지 8백 85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対北傀기술협력개발에 관해 北傀측과 회담을 개시하도록 승인했다는 것이다.

資本, 技術導入을 서두르고 있는 北傀는 최근 朝総聯傘下의 商社 회사간부들과 畜産, 鉱山대표단들을 平壌으로 불러들여 여기에 관해 협의한 바조차 있다.

특히 79년 6월19일엔 朝総聯中央常任委経済局部長 주상근을 단장으로한 일단의 '朝総聯信用組合간부들을 평양으로 초청, 조총련의 신용조합사업을 새로운 형태로 강화, 이를 통한 資金調達을 적극 독려한 것으로 北傀放送들이 6월 17일 보도했다[27]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앞으로의 北傀의 対外経済政策은 종전의 硬直된 아우타르키体制를 止揚, 経済計劃추진을 支援하는 開放体制에로의 적극적인 転換을 수행하여 貿易拡大를 시도하고, 対蘇, 対中共 및 対東欧圏貿易 및 技術導入을 지속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西欧, 日本 등 資本主義国에의 접근을 적극화하고, 輸出市場개척을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즉 제3世界에도 과감히 진출하게될 것이다.

그러나 南韓과의 経済交流, 経済協力관계改善의 展望은 硬化된 그들의 최근의 対南態度로 미루어 몹씨 不透明하다하겠다.

註

1) 金日成著作集 第3卷, P.79. 未来社, 1971.

2) 中央情報部, 日通제 6164호, 「中央放送」 7월 18일字.

3) ⓐ IMF&IBRD : " Direction of Trade "各年報 및 月報.

ⓑ UN;" Commodity Trade Statistics " 各年報.

ⓒ OECD;" Trade by Commodities " 各年報.

4) 金日成著作集 第2卷, P.358. 未来社.

5) 金日成著作集 第3卷, P.100. 未来社

6) 金日成著作集 第4卷, P·P-35-36.

7) 金永圭, 自力更生原則과 対外貿易, 北韓誌 1979.6 월호, P 137.

8) 金日成著作集 第4卷, P.314.

9) 中央情報部 日通제 5852号, 平壌放送 1978년 9월 10일.

10) Direction of Trad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75.7.
日本通商弘報 1975.7.16.

11) 金永圭, 前揭論文, P.141.

12) 金日成著作集 第4卷 未来社, P.23.

13) 名越健郎, <朝鮮半島情勢>, <世界週報> 1979.7.19.

14) 李承卓, <日·北傀貿易의 現況과 分析>, <共産圏問題>, 国会図書館, 1979 (夏季号), P.90.

15) Ed. by W·Gorden East&A·E·Moadie, The Changing World, London, 1959, P.609.<北韓経済> (中央日報東西問題研究論叢제 1輯) P.33 에서 再引用.

16) 日本內閣官房內閣調査室監修, ソビエト年報, 1954. P.802.
共同通信社, 世界年鑑, 1959. P.151.
17)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An Econmic Profile, Mainland Chaina, 1967. P.452.
18) 趙淳, <北韓의 經濟發展과 外國援助> <北韓經濟>, P.44.
19) 中央日報, 1979년 6월 16일字.
20) 中央日報, 1979년 7월 25일字.
21) 朝鮮日報, 1979년 8월 9일字.
22) 中央日報, 1979년 8월 9일字.
23) 中央日報, 1979년 5월 23일字.
24) 朝鮮日報, 1979년 5월 17일字.
25) 共産圈問題, 極東問題研究所, 1979.8月号.
26) 內外通信제 1157号, 內外通信社, 1979. 5.29.
27) 內外通信제 1175号, 1979 . 6.19.

RECENT OURSEAS ECONOMIC POLICY OF NORTH KOREA

(ABSTRACT)

The basis of economic policy in North Korea is to build self-supported national economy on a principle of self-regeneration and to promote with this foundation economic cooperation among her brotherhood countries.

However, such a strong autarky system which North Korea has been always maintained firmly, has brought an impediment to establish a goal of her economic plan and created an obstructive ele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so that there in the year of 1970 undertook variation and direction change in external economic policy.

Immediately after the Six-Year Development Plan (1971-6), this made an attempt at economic interchange with Western capitalistic countries from her own block economic cooperation order among Communist blocs.

North Korea has designed this year to increase external trades, and Kim Il Sung gives a priority to strengthen external trade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mphasizing projects at the 17th of the 5th Session Whole Member Meeting of the Central

Pary last year with his presiding and a New Year message of the year 1979 this year.

There are several motives to adopt such a positive act on the introducing external economic cooperation by North Korea. One was that they were spurred by the surprising situation from passing over the 12.5 billion dollars in the amount of external trade made by Republic of Korea.

Secondly, they intend to solve their heavy external debts by the obtaining of foreign currency through exports. Third, changing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elements, especially the conclusion of a treaty of Friendship-Peace Between Japan and China, and establishing normal relationship between the U. S. and China from which North Korea has the mind and an attitude to accept a lesson of better relationship toward the Western countries based on the China's Progmatism and Modernizing line. Fourth is to stretch a positive peace offensive along with intention of the expanding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to the nations of Third World and going one step forward to the Western countries. In the meanwhile, it is also to be noted that it is derived from struggle to recover the "the Loss of Credit" by factors of evasion and precaution.

on foreign trade with North Korea. Fifth is that (North Korea) is not content herself with aids from China and Soviet Russia and furthermore, it is a fact that there will be ambiguity in aid expectation in the future with political and ideological elements from antagonism between China and Russia. Sixth is that, as a matter of fact, it is hard to expect for North Korea to obtain the know-how traning and technical improvement with technological level and installing machinery in Communist blocs.

So to speak as conclusion, external economic policy in North Korea will change her autarkic system, and will positively carry out conversion by an open system for supporting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fulfil the trade expansion and it is expected to have foreign trades with Russia, China and the Estern Europen countries, along with introduction of technique.

In addition to this, she will atempt to aproach the capitalism blocs such as the Western countries and Japan and will intend to launch herself into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namely, into the Third World in order to seek trade market.

Nevertheless it is to be noted that with consideration of rejecting a talk with the "South Korea" concerned with their strong attitude toward the South, it looks very much ambiguous and pessimistic to have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to have a prospect of economic cooperation by improving relationships.